

할렐루야 전능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 풍파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바라는 건 한 가지’

애즈베리 부흥 8개월이 지나고

2023년 봄, 리브스(J. T. Reeves)는 휘트 칼리지 4학년이 되었다. 그와 친구들은 애즈베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소식에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다. 8개월 후, TGC는 리브스에게 그때의 경험이 그와 동료 학생들의 삶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이 미쳤는지를 물었다.

작년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해서 자주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말로 정의하기에는 참으로 답답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애즈베리의 그 부어 주심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단지 이 글을 통해 내게 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신이 상상하길 바랄 뿐이다.

세속화의 습격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세속주의의 폭풍 속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보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믿기에 당신은 너무 현명하거나 또는 너무 냉소적이다.

사춘기가 오기 전, 만연한 개인주의는 당신을 서커스 동물처럼 강제로 우리에게 가두고 외롭지 않은 척하며 아이폰을 건넨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지 않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효과가 없을 때, 불안감이 커지고 더 많은 벽을 쌓게 된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수준의 만족함에 참석하라는 도전이나 초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다.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포스트모던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당신의 삶은 오로지 가상 세계에서 이뤄진다. 엔터테인먼트는 삶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말 그대로 신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의 알고리즘이 당신의 관심(숭배 대상)을 독점한다.



때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하지만, 삶의 속 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마치 움직이는 스포츠카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2세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그 어떤 것도 아 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 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최 선을 다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들리지는 않는

다. 그것은 일종의 불가피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다. 그러던 중에 예기치 않은 입소문 하나가 들린다. 캔터키 주 한가운데에 있는 한 대학에서 뜨거운 예배 모임이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속으로 말하지만, 어느날 친구가 그러다. “지금 너한테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어? 아니잖

아?” 친구의 말은 상처를 준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30분 후에 집을 빠져 자동차의 시동을 건다. 그리고 앞으로 7시간 운전을 누가 하고 아는 사람 누구 집에서 어떻게 자는지 등등을 의논한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이상하기만 하다. 당신은 당연히 회의를 느낀다. 왜 다들 “여러분 모두 다(y'all)”라고 말하지? 거기서 만난 광경은 틱톡에 나온 것만큼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은 아말렉의 전술을 심판하신다

주님은 폭력을 사랑하고 자비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아래로 끌어들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은 고대 암흑기의 전쟁을 연상케 했다. 약탈자는 영토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질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살해했고, 노인들을 거리에서 납치했으며,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족을 살해하고 불태웠다. 하마스가 쓴 전술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의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와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하늘 아래에서 아예 지워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다(14절).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다. 그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삼상 15:1-3).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엄청난 약탈을 일삼지는 않았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아각을 쳐부수지만, 그럼에도 아말렉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유배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진영을 공격하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마지막 막으로 한 일은 아말렉의 약탈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되찾은 것이었다(30:1-20).

여호와와의 저주

모세가 아론과 훌의 손을 잡고 언덕에 앉아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래 계곡에서 적을 물리쳤다. 모든 일이 끝나고 여호와가 맹세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16절). 여호

(3면으로 계속)



시론 3면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4면 이영상 목사



인터뷰 16면 이용주 분부장&조셉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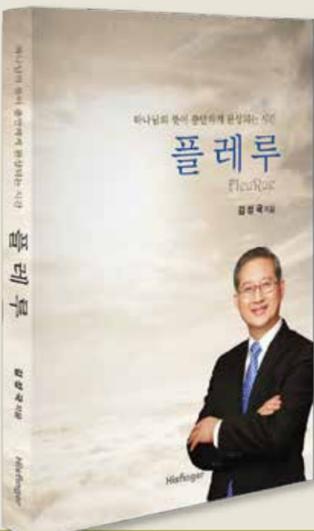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u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발행인 칼럼

늙어 가나, 익어 가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늙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렇다. 황금물결이 뒤지는 가을 들녘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며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곡식과 과일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익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냐고 물어본다면 한결같이 대답하리라. 파사로운 햇볕이 찾아온 시간도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따를 식혀준 시간도 있었지만, 매섭게 추운 밤도 있었고, 나를 기어코 떨어려는 듯한 폭풍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익음의 시간까지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겠는가.

아무도 오곡백과를 향해 "늙어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대신 "영글어간다, 익어간다"고 그들의 힘들었던 오랜 시간들을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치하해 준다. 그 말을 들은 오곡백과는 지난 모진 세월을 다 보상받았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이 고마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익어간다고 말해주는가. 누군가로 부터 "목사님, 나이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무 고마운 표현이다. 그렇게 돌려 표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하기도 한다. "목사님, 예전보다 늙어 보여요" 어찌하겠는가. 사실인 것을. 그런데 "목사님, 많이 익어보여요"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바람"이라는 노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 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우린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 가는 겁니다" 늙어 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바래고 있다.

내일이면 필자가 섬기는 교회가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연습해왔다. 감사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때부터 불러 사용하신 선진들을 깊이 생각하며 교우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고 목이 메이기도 하였다. 어제는 교회 설립때부터 충성을 다하시던 원로 장로님의 천국환송예배가 있었다. 늙음이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니나 그동안 삶을 "늙음"으로만 끝내지 않고 "익음"으로 마친 선진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진들 때문에 내일은 가슴이 더 북받치리라.

톨킨이 팀 켈러에게 끼친 영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구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J. R. R. 톨킨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던 팀 켈러는 '반지의 제왕' '실마릴리온'이든 또는 톨킨 사후에 출판된 13권의 전집이든, 그가 쓴 책을 쉬지 않고 읽었다.

어떻게 해야 소설가가 복음주의 목사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1937년에 '호빗'을 출판한 톨킨이 미국의 중산층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당장 영웅으로 등극한 건 아니었다. 그건 1954년에 '반지 원정대'가 나오기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톨킨은 단지 환경 파괴, 전쟁으로 파괴된 풍경, 그리고 사이어에서 살면서 파이프 담배에 만족하는 작은 호빗에 대한 비전 정도로 대표되는, 반문화의 목소리를 내는 작가 정도로만 알려졌고 전 세계의 기차역에는 "간달프를 대통령으로"와 "프로도는 살아 있다" 등의 낙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 한 해에만 해도 밴드 Black Sabbath, Led Zeppelin, 그리고 Genesis 모두가 다 톨킨의 작업에 근거를 둔 노래로 차트에 올랐다.

제인 치아바타리(Jane Ciabattari)는 BBC에 이렇게 썼다. "오늘날 우리는 톨킨의 작업이 코믹콘(Comic-Con)의 괴짜 세트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때는 우드스탁(Woodstock)에 모이는 군중이 더 가까웠다."

팀 켈러의 여동생 사론 존슨은 1972년을 톨킨의 여름으로 기억한다. 버크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팀은 펜실베이니아 존스타운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첫째이자 선생 그리고 열정가인 팀은 여동생에게 C. S. 루이스, 특히 톨킨의 책을 읽도록 했다. 팀은 계속해서 동생을 다그쳤다. "아직 다 안 읽었어? 아직도 안 읽었다고?" 그는 동생이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따라하기를 기대했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생과 공유하고 싶어 했다.

팀의 사망 전에 사론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팀은 직관력이 있어요. 그는 다양한 도약과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팀의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고 또 같이 북 스테디도 했어요. 이런저런 모든 비교와 대조를 했는데, 무엇보다 톨킨의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곤 했어요."

켈러가 이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을 때 의지한 대상이 바로 톨킨이었다. 소설 '반지의 제왕'은 사후론에 있는



권력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지가 가진 모든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휘둘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반지가 주는 매혹적인 주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예 해방, 왕국의 보호, 죄인 처벌 등 당신이 추구하는 대의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반지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 대의로 치장된 좋은 것들은 윤리를 단순한 방해물로 만드는 절대적 욕구가 된다. 톨킨은 로마서 12:18-21에서 악으로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바울의 경고를 예시로 반지를 사용한다. 오직 좋은 것만이 폭발력을 가진다.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 "반지를 낀 사람은 점점 더 반지에 예속되고 중독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반지는 우리가 한때 중독했던 규칙을 여기게 만들고 반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만든다. 톨킨의 소설과 실제 삶에서 이상은 끔찍한 악으로 이어지는 영적 중독이다."

켈러는 Every Good Endeavour에서 약간 다른 적용 방식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명에 관해서 쓴 이 책에서 켈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톨킨의 또 다른 이야기인 "Leaf by Niggle"에 내용의 대부분을 의존했다. 그는 또한 일에 관한 2004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설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사용했다. 켈러는 1995년 공개 포럼에서도 그 이야기를 언급했다. 켈러에게 "Leaf by Niggle"은 이상 숭배에 관한 교훈을 주는 반지 이야기와 함께 Tribeca에서 일하는 Makoto Fujimura와 같은 예술가뿐 아니라 웨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뉴욕의 여피들에게까지도 매력적일 수 있는

소재였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3부작은 단지 사랑받는 작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호빗' 및 다른 저작물을 통해서 그는 언어와 배경 이야기가 가득한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창조했다. 그는 이 작품에 수십 년을 매달렸다. 사실 톨킨은 죽기 전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행여라도 중간계가 꼭대기가 잘려버린 나무가 될까 봐 걱정했다. 창의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걱정할 때 문득 떠오른 게 바로 한 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다. 톨킨은 그것을 "Leaf by Niggle"이라고 불렀다.

니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야기의 기원을 알려준다. 톨킨은 혼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완벽주의 경향도 생산성에는 방해가 되었다. 꼭 가야 하는데 니글이 미루고 있는 여행을 통해서 톨킨은 죽음을 말하고 싶어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니글은 적어도 그림 하나를 꼭 완성하고 싶어 했다. 그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건 숲과 평야, 눈 덮인 산으로 가득한 나라 전체였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나무에 달린 나뭇잎 하나에 먼저 집중해야만 했다. 완벽주의와 이웃의 도움 요청 사이에서 그는 결코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웃을 도우던 중에 니글은 병에 걸렸고, 더 이상 여행을 연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죽었다. 그가 살던 집을 산 사람들은 니글의 그림이 담긴 캔버스를 발견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본 것은 오로지 나뭇잎 하나가 전부였다. 그들은 그 그림을 박물관에 기증했고, 그곳에서 몇몇이 그 그림을 보았다.

정의와 자비의 목소리를 듣는 니글을 통해서 톨킨의 이야기는 영원까지 계속된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교서점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The Bank of Princeton

5.20% APY* 18 Month Certificate of Deposit¹

4.60% APY* Premier Money Market Account²
 On Balances Over \$50,000

3.00% APY*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³
 On Balances Over \$50,000

1.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Offer valid on a 18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8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8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October 16,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2.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Exclusive Premier Money Market Account offer at The Bank of Princeton valid on NEW MONEY ONLY. No minimum deposit to open account. No monthly service charges.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No minimum balance required to earn interest.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April 1,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3.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promotion available at Elkins Park,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NEW MONEY ONLY and for NEW BUSINESS ACCOUNTS ONLY. New Money cannot be funds held at The Bank of Princeton prior to the opening of this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June 5,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www.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의는 플라싱·제리코·포트리·팔리세이즈파크·엘킨스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바라는 건 한 가지’

(1면에서 계속)

하지만 뭔가가 당신을 붙잡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당신의 경우는 몇 주가 걸린다. 캠퍼스로 돌아가서 몇 주에 걸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수년 동안 갇혀 있던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지며, 당신과 친구들은 왜 지금까지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아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뿐.

영광을 목격함

당신은 기적을 믿지 않았지만, 친구 몇몇이 의학적 설명으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다. 불행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성경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불가능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막 11:23).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예배뿐이다. 더 이상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새 개인주의는 사라진다. 당신은 이제 혼자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당신은 마음이 녹았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고백을 쏟아낸다(약 5:16).

당신과 당신 친구의 친구들이 매일 서로에게 나사렛 예수를 따르도록 도전을 (아니, 초대들) 할 때 불안이 금세 사라질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눅 6:12), 자발적인 예배(시 27:4), 그리고 눈물로 중보하는 일(빌 3:18)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닌 것 같다.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다.

모든 “재미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식욕은 언젠가부터 사라졌고, 공부방에 들어간 당신의 눈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다. “정말 끔찍해.” 그녀가 말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도무지 성경 읽기를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당신은 그만 웃음을 터뜨린다. 실상은 당신도 출애굽기 27-30장을 마쳐 다 읽고 싶어서 공부방에 들어온 거니까.

잠시 중단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당신은 출애굽기 27-30장을 읽고 싶었던 걸까?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는 당신 삶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의 말에 매료되었다.

당신은 애초에 그가 더 나은 삶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경험할 시간이나 관심을 결코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달라진 상상

나는 다양한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023년 봄 성령님과의 만남은 매우 달랐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에즈베리의 부어주심은 독특했다. 그것은 대규모 개종이나 대규모 회개, 대규모 선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처럼 보였다. 그건 예배 받아 합당한 분에게 드리는 우리의 관심과 예배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라는 초대였다.

비명을 질러대는 알고리즘의 흐름 위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속삭이셨다. 나는 네가 내게 주려고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서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는 네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가?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상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으며 우리는 살고 있다.

by J. T. Reeves, TGC

시론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와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y)



은호근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오래전 EBS에서 방송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한사람이 길을 건너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행인들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한사람이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출근시간 전까지 직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행인 중 상당수가 하늘을 쳐다보았고 이윽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은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1969년 미국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 뉴욕의 거리 한복판에서 실시한 실험을 재현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제3의 법칙’ 이론의 실험입니다. 바쁜 대중 속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세사람을 차례로 투입하면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올바른 사회 정의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데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바쁜 일을 하는 세명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때로는 수많은 대중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역으로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인턴뷰 퍼온 글)

이른바 스탠리 밀그램의 ‘제3 법칙 실험’에 의하면 ‘한사람, 또 한사람 그리고 다시 또 한사람’ 이렇게 3사람이 있다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 과제에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그 열쇠가 ‘창조적 소수’에 달려있다.”고 설화하면서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y)도 말합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과 역사의 음성을 경계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나 오만에 빠진다면 대중다수들을 폭압으로 억누르는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게 되며 결국 쇠퇴를 거듭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였다.”고 통찰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지배적 소수’가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능력을 상실할 때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다. 세계 4대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미노스 문명 등 한때 엄청난 수준의 문명을 꽃피웠다가 사라진 지구상의 14개 문명 소멸 원인의 공통점은 바로 ‘지배적 소수의 타락’이었다고 부연합니다.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 처음에는 ‘창조적 소수였을지라도 점점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부가 축적되며 권력과 힘의 권좌를 안일하게 누릴 때, 이에 비례하여 ‘창조적 소수’는 점점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 ‘지배적 소수’때문에 대다수 대중들이 사회가, 국가가 결국 쇠퇴를 길을 걷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중들은 ‘창조적 소수’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 나가 ‘지배적 소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짐지하여 택하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창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적 소수’의 자리에서 있다가 점점 왕권강화로 인한 ‘지배적 소수’의 자리로 타락했을 때 결국 대다수 대중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삼상 31장)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또다른 ‘창조적 소수’인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권의 안락함에 빠져 자신의 총복인 무리 장군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인 다윗이 ‘지배적 소수’로 갈려는 즈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에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응답하여 다시 ‘창조적 소수’의 자리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대다수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은 주변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권 강화로 ‘지배적 소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직접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열왕 11:9)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결국 BC 721 북왕국과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과 역사적 교훈들을 영적으로 뼈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공교회”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공교회 지도자인 성직자에게 하나님의 땅인 공교회를 다스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지도자인 성직자들을 도우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모두다 하나님의 땅인 공교회에 ‘창조적 소수’로 부름 받았습니. 그러나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커가면 어느덧 이들이 먼저 권좌에 앉아 ‘지배적 소수’로 사고하고 군림합니다. 이때 교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속한 성도들도 소모적인 일들에 휩쓸려 점점 영성이 고갈되어 시합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합니다. ‘창조적 소수’의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 겸손함, 회개의 용기’를 통해 ‘자기 자리’가 ‘지배적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나 늘 깨어 성찰하는 처절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소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단풍이 만연해 가는 이 가을에 성직자나 평신도 지도자나 성도들 모두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3사람인 ‘창조적 소수’로 살려고 다시 한번 웃길 여윌 때, 바로 그 3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집단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리 되어준다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기적들이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pastor.eun@gmail.com

하나님은 아말렉의 전술을 심판하신다

(1면에서 계속)

400명이 다윗의 손을 피해서 탈출했고(30:17), 아말렉은 또다시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와 자신의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악당은 사울 왕과 싸웠던 왕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다(에 3:1; 8:3). 에스더는 교묘하게 하만을 함정에 빠뜨렸고, 주님(이름은 밝혀지지 않음)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율했고, 그 결과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서 그 자신이 죽게 된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다. 여호와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잊힌 민족이 된 아말렉은 이제 단지 성경에서만 기억될 뿐이다.

고대 세계에는 사악한 민족이 적지 않게 있었다. 아시리아 민족의 잔인성은 악명 높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와 진멸 명령을 받아 마땅했다. 그런데도 여호와와 왜 하필이면 아말렉을 특별히 적대하여 지

목했을까?

전쟁 중인 아말렉

아말렉은 약자를 공격하는 데에 특화된 민족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정체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신 25:18).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울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을 때 아말렉 침략자들이 시글락을 공격했는데, 거기에 있는 오로지 여자와 아이들만 있었다(삼상 30:2-3). 하만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을 멸절하고자 아하수에로 제국의 힘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아말렉 민족은 단지 잔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정반대 즉네가티브 필름(photonegative)과 같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거듭 지시했다(출 22:22; 신 10:18; 14:29; 24:19-

21; 26:12-13). 에발 산과 그리스산에서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신 27:19)를 향한 저주를 선언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을 비난했다(사 1:17; 렘 7:6; 22:3; 겔 16:49; 속 7:10).

아말렉 민족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민간인 피해”는 우연이 아니었다.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선택된 성읍에서 시행했던 납자, 여자, 어린이, 동물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의 금지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모든 납자가 사라진 뒤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리고와 아이, 호르마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그 모두를 연기와 불로 여호와께 바쳤다. 그에 반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약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아말렉은 반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인류를 향한 여호와와 목적에 정반대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 군사 전술을 가진 민족이었다.

(9면으로 계속)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자

얼마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다. "1664년 영국 런던에 가공할 만한 페스트가 발생했다. 수백 명의 런던시민이

삼시간에 목숨을 잃었다. 페스트는 맹렬한 기세로 여러 도시에 전염됐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이 전염병을

피해 올즈도르프라는 시골로 내려갔다. 이곳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이었다. 청년은 학문연구에 정신없이 몰입했던 삶에서 벗어나 모처럼 여유를 즐겼다. 청년은 넓은 뜰을 거닐면서 사색에 잠겼다. 한번은 청년이 트랙에 앉아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는 이것에 의문을 품었다. "사과가 왜 옆이나 위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만 떨어지는 것일까. 땅에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청년의 이름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턴이었다. 이날 청년이 발견한 것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었다.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여

유를 갖고 신중하게 탐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전염병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하는 일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본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 그는 형제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렸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이라

는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하였다. 그 후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종살이하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애굽인을 죽였다가 그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밀고로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이란 세월을 낭비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그것은 훈련이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 그는 광야를 지나면서 절대로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 같은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런 예는 우리에게 현재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앞날을 보시고 나를 훈련하신다고 믿으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견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게 우리의 눈을 열어 길을 보게 하실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산정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 성도 같지 않은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도인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범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린 사람 즉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은 일인 줄도 알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자랑하게끔 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들은 바울이 겁이 많고

은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진급이라고 합니다. 상급학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상급학교 갈 때 우리는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고 잘 준비

하면,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고 불의를 좇는 사람에게겐 진노와 화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행히도 주님이 치시는 시험은 무감독입니다. 스스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정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때마다 주님이 주신 시험을 잘 치렀는지 살펴본다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혹은 없다면

물은 고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과거에 잘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오래되면 점검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래되면 오랜 자동차처럼 엔진은 하지만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뎠던 것이 성도가 됩니다. 관심도 없

도 있었고, 교회는 바울에게는 야박했지만, 그들 자신에게만 큼은 쉽게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서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내가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도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5절에서 강조되는 말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 너희가 6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때 당신이 당신이 하면서 상대방을 자주 반복해서 부를 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을 잘못 쳐도 아무 일도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강아지도 사람들에게 한번 버림받으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좋은 주인이 데려가서 키우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어도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버림받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많은 괴로움과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은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매일 매일 점검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ng78us@yahoo.com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1-13



성경 속에서 시험은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test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속에서 종종 만나는 은혜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까지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 속의 욕심이나 탐욕을 사탄이 격발을 시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유혹입니다. 물론 이 유혹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까 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합당하기를 알아보시기 위해 치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용서하지 못할 범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납하는 교회를 책망합니다. 바울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내밀면서 정작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이처럼 화가 나 있을까? 항상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만 보였던 바울이 이번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할까 하는 궁금궁금이 생깁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님이 보여주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올라갔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속스럽고 유익도 없지만 할 수 없이 자랑해야 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을 한다는 게 어리석

무서워서 편지에만 험선 사람인 척 쓰지만 실제로 얼굴과 얼굴로서는 자신들에게 절대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쉽게 성도들이 물들어 갑니다. 선한 일은 영향력이 극히 작아서 쉽게 퍼지지 못 하는데 못된 일은 때때로 너무 잘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결론처럼 그런 못된 사람들을 용납한 너희들보다 자신에 대해 끊임 없이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살핀다는 말은 자신을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시험은 범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세군

못 한 사람은 대충 올라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좋은 점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했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성도가 천국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날 천국 임성 시험을 치른다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특수반을 만들어 엘리트 코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신앙 생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가는 성적표에 내신 성적을 담임목사가 준다고 하면 굉장한 치맛바람이 온 교회에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그다지 영동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혹은 안 계신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 대신 불평만 나오게 되고 교회는 세상이 주는 재미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나 자신이 앞서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노력이 없다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

지고 다 아는 듯한 착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신앙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래 믿은 믿음이 종교자 같은 성도들에게 시험은 더욱 필요함입니다. 오래된 차는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어렵고 계속 고장이 납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신앙의식이 쌓이면 잘못된 교회관도 생기고 더 심각한 잘못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노력이 없다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노골적인 음란물 콘텐츠가 학교 도서관에 계속 열람되는 것에 반응하는 학부모와 리더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과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미 하원의 교육 및 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학교 도서관의 노골적인 음란물 콘텐츠의 만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음란물 콘텐츠의 도서 물들이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도서실 안에 만연한 것에 대한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 증인은 '금지도서 - Banned Books' 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유행으로 분류된 것이 사실상은 미국 학교 도서관에 음란물이 유입되는 유행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론 빈(Aaron Bean) 의원은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의 민주당 동료 중 일부는 성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이나 편견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책들을 '금지'하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미 드러났듯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노골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책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책들의 내용은 너무 외설적이어서 성인 포럼에서 해당 책의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인들이 검열을 받는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권의 노골적인 음란 서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클레이 카운티의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회의가 공중파로 방송되고 있어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구절이 FCC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럭키 Lucky'라는 책을 낭독하려는 학생 아버지의 마이크를 끊어야 했다. 그리고 심야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젠더퀴어'의 언어가 등장하는 광고 방영을 거부했다." 기절할만한 학생들끼리의 동성애 성관계 모습들을 여러장에서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Moms for Liberty 지부 회장인 린지 스미스는 아들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도서 금지를 중단하라'라는 주장으로까지 갔는가?"라고 그녀는 질문하고 "이것은 이성애자 대 성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사람이 '도서 금지'라고 부르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과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을 것인데, 학교 도서관에 음란물을 보관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학교 도서관에서 본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음란물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한 가지 예로 밝은 색과 강아지 그림이 전면에 있는 순진해 보이는 책이 있었다. 3세 어린이에게는 이 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언어들은 적절하지 않았는데, '숨바꼭질' 용어집에서 3~4세 어린이는 가족, 여장남자, 속옷의 이미지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목한 또 다른 책은 "젠더 퀴어"였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노골적인 책은 외설 및 음란물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젠더 퀴어'는 학부모 단체와 소위 책 배너가 실제로 반대하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과 정책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원인 맥스 에텐은 좌파 미디어가 어떻게 언어를 왜곡하여 "도서 금지"가 유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금지된 책들을 홍보하는 PEN 아메리카가 만든 목록에서 실제로 "금지된"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보수 언론에 공동 집필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PEN America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한 2,532권의 책 중 실제로 학교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약 4분의 3이었다."

그는 '금지'된 책들에 대해 공통된 주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삭제된 10권의 책 모두 성에 대한 불쾌할 정도로 노골적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den은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이 책들을 제거할 생각까지 하는" 학군을 향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하며 지성의 균형적 발달에 도움이 될 도서들을 비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친 LGBTQ를 표방하며 노골적이고도 음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도서들을 버젓이 열람하고 있는 공립학교 도서관들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을 자유가 있지만, 부적절한 책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에 아무 책이나 읽도록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교육 방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 때문에 '금지(banned)'된 책이라면 당장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아이들을 진정해준 공화당 의원들과 단체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어떤 금지도서들이 아직도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건전하고도 영혼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만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이 금지도서가 되는 세상이 오기 전에 많이 읽혀야 할 것입니다.

금지된 책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림을 보기 원하시면 TVNEXT.org 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좁은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나머지 영토 다시 탈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비치에서 이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토회복

A: 좋은 질문입니다. 영국의 총사령관인 알렌비 장군은 오스만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발표하여 선언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지역을 설정하고 유대인 민족 국가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영토문제로 긴장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UN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아랍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양분시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결의했으나 아랍은 이를 무효로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4일에 독자적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거의 2,550년만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자 이스라엘의 독립선언과 함께 이집트는 텔아비브를 바로 폭격하였습니다.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쟁을 걸어옵니다. 독립 그 다음 날인 5월 15일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이 2만명을 동원해 탱크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을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금방 나라가 독립했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기관총, 장총 2,000개 낙후된 중공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야웨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벌이 떼를 지어 와서 아랍군사들과 탱크속에 들어가서 쏘아 대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랍군인들의 눈을 열어 이스라엘 진에 진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했습니다. 아랍사람들은 알라신이 자기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여 5월 18일에 퇴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한 무기를 갖고도 20일간을 버텨 텔아비브를 지켜내었고 전 세계는 놀랐고 아랍권은 더욱 놀랐습니다. 6.18일 스웨덴의 중재로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잠시 평화가 이루어지자 미국과 전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식 무기를 그때 사서 고국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무기로 재무장한 이스라엘은 모세 다이안 장군의 지휘 아래 평화 협상이 타결되기 전 카이로(이집트의 수도), 다마스쿠스(시리아의 수도), 암만(요르단의 수도)을 차례로 현대식 무기로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팔레스타인 땅 78%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서안지구, 이집트 왕국의 가자지구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 데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네 나라의 연합군, 25만명이 전투기와 탱크를 이스라엘의 국경 구간에 배치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 버리려 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동원해 6월5일에 공격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먼저 알고 6월 5일 새벽3시에 기습 선제공격을 해 왔습니다. 예상 외로 대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시리아의 골란 고원,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완전 영토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 보아야 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집승의 짓’이라는 표현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정도의 끔찍한 유대인 학살이 하마스 테러집단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학살이었습니다. 아기들과 아빠들과 엄마들이 침실과 대피실 등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아기들이 참수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마스 집단의 끔찍한 학살에 분노한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 집단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마스 집단을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들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 집단은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는 구별된 집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마스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일어나는 각종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은 박스를 포장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상황들은 문제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마스 집단은 겉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

표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점을 그리스도인들은 간파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마스 집단의 참혹한 학살 사건 소식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의의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분노를 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

드시 품어야 할 가장 중대한 분노는 자신들에게입니다. 끔찍한 학살로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정의의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지옥 형벌의 심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자신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이번 하마스 집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칫 정치적 논쟁이나 막연한 정의감이나 막연한 동정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 보아야 할 포인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어

는 때 보다 더욱더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들의 심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워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이스라엘 땅에도 팔레스타인 땅에도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들마다 심기워지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나 이스라엘 땅에 궁극적으로 꽃피어 할 것같은 이슬람의 유대주의의 것발도 아닙니다. 그 것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의 것발입니다.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것발을 꽃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희생은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송고하기까지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하는 희생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가시거리 3m... 美 ‘슈퍼안개’ 속 158대 연쇄 추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3일 ‘슈퍼안개’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5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사고는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존 더 배티스트 패리시를 지나가는 5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주 경찰은 안개가 걷힌 뒤 사고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보면 차량끼리 뒤엉킨 도로는 폐차장처럼 바뀌었다. SNS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에 사고 현장 영상도 속속 올라왔다. 일부 차량은 앞뒤 차량 사이에서 완파됐고, 부상을 당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경상만 입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갓길로 나와 절망한 듯 주저앉거나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엑스에서 다른 영상을 보면 한 대형 트럭은 화염에 휩싸여 연기를 뿜어냈다. 주 경찰은 “첫 추돌 이후 차량 여러 대에 불이 붙었고, 그중 한 대는 위험한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트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주내 뉴올리언스 서쪽에서 질계 발생한 안개가 사고 지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를 10피트(약 3m) 이하로 떨어뜨린 이 안개는 미국에서 ‘슈퍼안개’(super fog)로 불리고 있다.

미국 뉴스채널 CNN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습한 대기를 만나 ‘슈퍼안개’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여름부터 고온과 건조한 대기로 인한 산불과 가뭄에 시달렸다.

하마스 인질 2명 석방, 속내 복잡한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3일 고령의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모녀를 석방한 지사를 만에 추가로 풀어준 것으로, 휴전 협정과 같은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 침공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복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요체베드 리프시츠(85)와 누리 쿠파(79)를 23일 밤 가자지구 남부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 측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 인근 니르 오즈 키부츠(집단농장) 주민들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했던 지난 7일 납치됐다. 하마스 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고령의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인도적 이유를 강조했으나 인질 석방을 고리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티븐 주네스 미 샌프란시스코대 중동정치학 교수는 “하마스가 이번 석방을 선의의 제스처로 삼아 이스라엘에 협상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상 침공 시기를 조율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224명 중 현재까지 석방된 인질은 4명에 불과하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들이 처형될 것을 각오하고 지상전을 강행하거나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공습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하면 하마스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 관련 질문에 “일단 인질들이 풀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력 침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상 침공이 아직 실행 가능한 단계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침실 박락서 경련, 급이 심폐소생술”... 푸틴, 또 위독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은 23일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SVR’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2일 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채널은 “밤 9시55분쯤 푸틴 대통령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침실로 달려가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관저 내 특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며 “의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제때 응급처치가 이뤄져 푸틴 대통령은 의식을 되찾았다”며 “대통령의 상태는 안정됐고 지속적인 의료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너럴SVR은 전직 크렘린궁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채널로 추정된다. 이 채널은 암 수술실, 조기 파킨슨병 진단실, 계단 실족 후 대변 실수 등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무머를 올리면서도 근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러는 “푸틴 대통령이 22일 저녁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전용차량을 타고 크렘린궁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주로 크렘린궁이 아닌 모스크바 외곽에 거주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작성된 미국 정보부의 기밀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이 진행암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르헨, 돌풍보다 안정 택하나... 여당 후보 대선 1위 ‘반전’

인플레이션이 140%에 육박하며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22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치러졌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개표 결과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를 계승하는 세르히오 마사(51) 경제부 장관에 대한 지지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매체들은 이날 개표 결과 좌파인 집권당의 마사 후보가 36.68%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인 자유전진당의 밀레이 후보는 29.98%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우파 야권 후보인 파트리시아 불리치(67) 전 치안장관이 23.83%로 뒤를 이었다. 투표율은 약 74%였다. 마사 후보와 밀레이 후보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 득표하고 득표율에서 2위에 10% 포인트 이상 앞서야 결선투표 없이 당선

이 확정된다. 현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날 개표 결과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비해 놀랍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페론주의 계열과

중도우파 야당이 정치 구도를 양분해 왔다. 극우이자 정치 신인인 밀레이 후보는 페소화의 미국 달러화 대체 등 과격적인 공약으로 전·현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며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최근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해 이날 당선을 확정짓거나 1위로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마사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우리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르헨티나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중견 정치인으로 하원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경제부 장관에 취임해 3개 부처가 통합된 ‘슈퍼경제부’를 이끌었다. 대중적인 감세 정책으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밀레이 후보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변화에 투표했다는 점에서 이날 투표 결과는 역사적”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밀레이는 2021년 의회에 진출한 뒤 ‘정치적 아웃사이드’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중앙은행 폐지, 정부기관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글라데시 열차 충돌로 최소 17명 사망...신호 무시하고 진입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EFE·AFP 통신과 현지 매체가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바이라브시(市) 열차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역에 도착한 여객열차가 수도 다카로 향하기 위해 선로를 바꾸던 중 치타공행 화물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선로로 진입해 여객열차 뒷부분 객차 2대를 들이받았다고 방글라데시 철도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사고로 여객열차 객차 2대가 탈선해 뒤집혔다. 각 객차에는 최소 60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라브시 고위 공무원인 사디쿠르 라흐만은 “최소 17구의 주검을 수습했다”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선한 두 객차에 200명 이상이 탄 것 같다”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부상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부상자 수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신호체계 부실이나 업무 태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열차사고가 잦은 편이다. 2019년 11월 동부 브라만바리아에서는 두 여객열차가 충돌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다카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치타공으로 가던 미니버스가 열차에 들이받혀 적어도 11명이 숨지기도 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9. 김관여 (1878-1952)

김관여(金官汝)는 고종 15년인 1878년의 11월 19일에 한국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2학년 을 마치고 중퇴하였다. 26세가 되던 1904년 11월 27일에 그는 고베에서 '매그놀리아' 기선에 올랐다. 당시 그는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를 여인 홀애비였다. 그는 약 2주간 태평양을 건너 다음 달인 12월 9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그는 영문 표기인 Kim Kwan Yer로 통했다.

김관여는 호놀룰루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그해 서른세 살이 되던 1910년에도 하와이섬 하마구아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했다. 그해에 같은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던 33세의 박호봉과 25세의 오궁웅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들 모두는 미혼남이었는데 박호봉은 김관여가 호놀룰루로 온 그해에 왔고, 오궁웅은 이듬 해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제를 개최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약 300명의 한인 소년과 소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인 사회의 큰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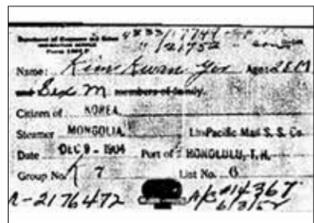
구세군 한인 영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한편 성령 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성령 학교에서 고아를 양육하였고, 어린이를 위하여 국어 교실을 개설했다. 이 성령 학교는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1937년 2월에 문을 닫았다.



이후 김관여는 호놀룰루로 이주하였다. 그는 이규연과 전경준 등과 함께 하와이 구세군 정령인 브란치 카스 부인을 찾았다. 카스 부인은 1883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사역하였고, 인도에서 단기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한 적도 있었다.

각스 부인의 후원으로 1912년 10월 15일에 하와이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놀룰루에서 한인 구세군 영문이 설립될 수 있었다. 그해 12월 10일에 호놀룰루의 구우이 스트리트에 월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한인 구세군 영문을 세웠다. 교인이 적을 때는 15명이었고, 교인이 많을 때는 40명이었다.

그해 구우이 스트리트에서 빈야드 스트리트 가까이 있는 리버 스트리트로 구세군 한인 영문을 이동했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이 크리스마스트리 축



호놀룰루에 도착한 김관여의 서류



김관여와 박메리 가정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영문 사관이었던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영문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맞았다. 호봉 구세군 백인 영문에서 62달러 50센트를 부조했고, 부인 제비가 10달러를 부조하는 등 백인 구세군 영문에서도 함께 위로에 동참했다. 김관여는 안재덕과 함께 한인으로서 제일 많은 5달러를 부조하여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김관여 외에도 이규현,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김관여는 1924년경에 18세 어린 박메리와 재혼했다. 박메리도 재혼한 상태였다. 박메리는 1896년 5월 25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마르타에게서 태어났고, 김애기로 불렸다. 김애기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아 메리로 불린 듯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마르타는 김메리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어머니 김마르타가 사탕수수밭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딸 김애기는 수잔나 웨슬리 홈에서 거주했다.

1925년에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거주하던 A.M 브라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재직했다. 김관

여는 1916년경에 23세 어린 정호연과 결혼했다. 정호연은 1901년에 태어나 훗 시와 결혼하여 윌터라고 불린 태봉과 프랭크라고 불린 태수를 낳았다. 김관여와는 재혼한 상태였다. 김관여는 정호연에게서 딸 클라라와 로즈 그리고 아들 윌리엄을 낳았다.

구세군 영문은 민찬호를 크게 환영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에 1919년 10월 25일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월 23일 오후 7시 반경에 베리탄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제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

였다더라."

1920년 3월 18일 목요일에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이면서 구세군 영문의 사관을 보좌하는 부교였다. 그는 부교로서 영문을 위하여 애쓰며 신실하게 영문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영문 사관이었던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영문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맞았다. 호봉 구세군 백인 영문에서 62달러 50센트를 부조했고, 부인 제비가 10달러를 부조하는 등 백인 구세군 영문에서도 함께 위로에 동참했다. 김관여는 안재덕과 함께 한인으로서 제일 많은 5달러를 부조하여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김관여 외에도 이규현,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김관여는 1924년경에 18세 어린 박메리와 재혼했다. 박메리도 재혼한 상태였다. 박메리는 1896년 5월 25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마르타에게서 태어났고, 김애기로 불렸다. 김애기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아 메리로 불린 듯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마르타는 김메리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어머니 김마르타가 사탕수수밭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딸 김애기는 수잔나 웨슬리 홈에서 거주했다.

1925년에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거주하던 A.M 브라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재직했다. 김관

여는 1916년경에 23세 어린 정호연과 결혼했다. 정호연은 1901년에 태어나 훗 시와 결혼하여 윌터라고 불린 태봉과 프랭크라고 불린 태수를 낳았다. 김관여와는 재혼한 상태였다. 김관여는 정호연에게서 딸 클라라와 로즈 그리고 아들 윌리엄을 낳았다.

구세군 영문은 민찬호를 크게 환영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에 1919년 10월 25일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월 23일 오후 7시 반경에 베리탄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제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

였다더라."

1920년 3월 18일 목요일에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이면서 구세군 영문의 사관을 보좌하는 부교였다. 그는 부교로서 영문을 위하여 애쓰며 신실하게 영문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영문 사관이었던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영문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맞았다. 호봉 구세군 백인 영문에서 62달러 50센트를 부조했고, 부인 제비가 10달러를 부조하는 등 백인 구세군 영문에서도 함께 위로에 동참했다. 김관여는 안재덕과 함께 한인으로서 제일 많은 5달러를 부조하여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김관여 외에도 이규현,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김관여는 1924년경에 18세 어린 박메리와 재혼했다. 박메리도 재혼한 상태였다. 박메리는 1896년 5월 25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마르타에게서 태어났고, 김애기로 불렸다. 김애기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아 메리로 불린 듯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마르타는 김메리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어머니 김마르타가 사탕수수밭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딸 김애기는 수잔나 웨슬리 홈에서 거주했다.

1925년에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거주하던 A.M 브라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재직했다. 김관

여는 1916년경에 23세 어린 정호연과 결혼했다. 정호연은 1901년에 태어나 훗 시와 결혼하여 윌터라고 불린 태봉과 프랭크라고 불린 태수를 낳았다. 김관여와는 재혼한 상태였다. 김관여는 정호연에게서 딸 클라라와 로즈 그리고 아들 윌리엄을 낳았다.

구세군 영문은 민찬호를 크게 환영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에 1919년 10월 25일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월 23일 오후 7시 반경에 베리탄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제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

였다더라."

1920년 3월 18일 목요일에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이면서 구세군 영문의 사관을 보좌하는 부교였다. 그는 부교로서 영문을 위하여 애쓰며 신실하게 영문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영문 사관이었던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영문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맞았다. 호봉 구세군 백인 영문에서 62달러 50센트를 부조했고, 부인 제비가 10달러를 부조하는 등 백인 구세군 영문에서도 함께 위로에 동참했다. 김관여는 안재덕과 함께 한인으로서 제일 많은 5달러를 부조하여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김관여 외에도 이규현,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김관여는 1924년경에 18세 어린 박메리와 재혼했다. 박메리도 재혼한 상태였다. 박메리는 1896년 5월 25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마르타에게서 태어났고, 김애기로 불렸다. 김애기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아 메리로 불린 듯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마르타는 김메리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어머니 김마르타가 사탕수수밭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딸 김애기는 수잔나 웨슬리 홈에서 거주했다.

1925년에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거주하던 A.M 브라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재직했다. 김관

여는 1916년경에 23세 어린 정호연과 결혼했다. 정호연은 1901년에 태어나 훗 시와 결혼하여 윌터라고 불린 태봉과 프랭크라고 불린 태수를 낳았다. 김관여와는 재혼한 상태였다. 김관여는 정호연에게서 딸 클라라와 로즈 그리고 아들 윌리엄을 낳았다.

구세군 영문은 민찬호를 크게 환영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에 1919년 10월 25일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월 23일 오후 7시 반경에 베리탄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제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

였다더라."

1920년 3월 18일 목요일에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이면서 구세군 영문의 사관을 보좌하는 부교였다. 그는 부교로서 영문을 위하여 애쓰며 신실하게 영문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영문 사관이었던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영문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맞았다. 호봉 구세군 백인 영문에서 62달러 50센트를 부조했고, 부인 제비가 10달러를 부조하는 등 백인 구세군 영문에서도 함께 위로에 동참했다. 김관여는 안재덕과 함께 한인으로서 제일 많은 5달러를 부조하여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김관여 외에도 이규현,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김관여는 1924년경에 18세 어린 박메리와 재혼했다. 박메리도 재혼한 상태였다. 박메리는 1896년 5월 25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마르타에게서 태어났고, 김애기로 불렸다. 김애기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아 메리로 불린 듯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마르타는 김메리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어머니 김마르타가 사탕수수밭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딸 김애기는 수잔나 웨슬리 홈에서 거주했다.

1925년에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거주하던 A.M 브라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재직했다. 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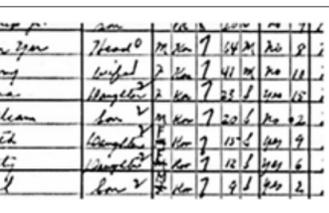
여는 1916년경에 23세 어린 정호연과 결혼했다. 정호연은 1901년에 태어나 훗 시와 결혼하여 윌터라고 불린 태봉과 프랭크라고 불린 태수를 낳았다. 김관여와는 재혼한 상태였다. 김관여는 정호연에게서 딸 클라라와 로즈 그리고 아들 윌리엄을 낳았다.

구세군 영문은 민찬호를 크게 환영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에 1919년 10월 25일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월 23일 오후 7시 반경에 베리탄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제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

였다더라."

1920년 3월 18일 목요일에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이면서 구세군 영문의 사관을 보좌하는 부교였다. 그는 부교로서 영문을 위하여 애쓰며 신실하게 영문

을 섬긴 영문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았다. 특별히 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울 자세를 지녔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도우려고 노력했다. 구세군 한인 사관이나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이 그의 먼저 감을 애석해했다. 이날 부조한 사람 가운데 구세군 사관 이름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구세군 병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부조한 명단이다: 안재덕, 이윤재, 이규현, 이재연, 김달룡, 한덕재, 임덕순, 문 윤, 김진옥, 오두령, 박용주, 오대경, 김경선, 박재선, 로원식, 박성문, 문원서, 박문범, 김용진, 박경일, 이하주, 송공선, 김경락, 남득도, 윤희중, 박주범, 문달룡, 오대유, 김경식, 김유호, 고치운, 김순성, 공명운, 최원숙, 곽종래, 김인길, 남경애, 서축삼, 김덕찬, 전홍삼, 최재덕, 최영신, 한길수 정만서, 정용만, 박종학, 이동빈.



1940년 연방정부 인구조사

여는 박메리에게서 1925년에 릿을 낳았고, 1928년에 베티를 낳았으며 1931년에 얼을 낳았다.

1940년에 예순네 살의 김관여는 호놀룰루에서 이발소를 경영하였다. 마흔한 살의 아내 박메리와 딸 클라라, 아들 윌리엄, 딸 릿, 딸 베티 그리고 아들 얼과 함께 거주했다. 클라라는 스물세 살로 직업이 없었으나, 스무 살의 아들 윌리엄은 신문사에서 부편집인으로 활동했고, 다른 세 자녀는 학생이었다. 열다섯 살의 릿은 9학년, 열두 살의 베티는 6학년 그리고 아홉 살의 얼은 2학년이었다. 5년 후인 1945년에 윌리엄이 호놀룰루에서 결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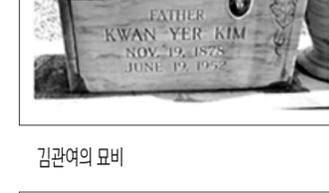
1950년에 김관여는 은퇴하고 호놀룰루에서 거주했다. 쉰 살의 아내 박메리는 호텔에서 세탁소 보조로 활동했고, 스무다섯 살의 딸 릿은 전화국 직원으로 취직하였으며, 서른세 살된 딸 클라라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네 살 먹은 손녀 달린 언니스트슨이 함께 거주했다.

김관여는 1952년 6월 19일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향년 일흔네 살로 소천했다. 그는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김관여는 1952년 6월 19일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향년 일흔네 살로 소천했다. 그는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김관여는 1952년 6월 19일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향년 일흔네 살로 소천했다. 그는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김관여는 1952년 6월 19일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향년 일흔네 살로 소천했다. 그는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김관여의 묘비



김메리의 묘비

그의 부인 박메리는 남편 김관여가 소천한지 26년이 되던 1978년 1월 7일에 향년 여든두 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김관여와 함께 나란히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www.grocefamily.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4부예배: 오후 12:00 영어교(영-토): 오전 9: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c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8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주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c.org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연합목사) 상담사역: (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5장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2)

2.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간구할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떤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아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외의 다른 것이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유익한 것과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약속들이나 혹은 이 약속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들을 알 수 있는가? 보통 신자들은 이 약속들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혹은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공급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속하지 않는다.

성령은 기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하도록 하시며, 생각을 밝히 깨닫게 하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며,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 합당함과 매력을 알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로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미의 내용이 된다.

대답:

1. 은혜와 간구의 영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도록 약속되지는 않았다.

2. 기도문의 내용이 신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3.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하고 이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4.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도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5. 신자들이 하여금 약속된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도록 마음과 영혼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것을 올바르게 구하며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약속들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이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율법이 가진 신앙과 거룩함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미치는 율법의 내적인 영향력 어느 때나 어떤 일이나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만, 자신이 그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통로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이 명령의 요구를 꺼려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3. 성령은 신자들이 올바르게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기도하거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의 내용으로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탁월하거나 유익하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이상컬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서픽대학교 교수)

가르침의 부담과 기쁨

오래 전 일이다. 시간을 내서 며칠 간 조용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갔다. 그 곳에서 만난 어느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여러 역할이 기대된다.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넣어 주어야 하고,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삶을 바랍직하게 형성해 주어야 한다.

나도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바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니 전임교수로 가르친 지 어느새 이십 년이 넘었다. 알게 모르게 나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분이 나의 모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NY, NJ, Florida, and Hawaii.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고난의 축복

남가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샌디에고를 지나면 갈 수 있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지역입니다. 자동차로 짧게는 하루, 또는 1박 2일이면 충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멕시코의 인구는 크게 멕시코 출신의 백인(크리올),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메스티소), 그리고 원주민(인디오)으로 구성이 됩니다. 멕시코 인구 약 1억 2천 9백만 중에서 스

페인어가 아닌 순수 부족언어만 사용하는 인디오의 비율이 6.1%인 787만 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약 5만명 정도가 고향을 떠나 바하 캘리포니아로 이동하여 농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디오들은 농장주들이 제공하는 집단 거주지(캄보)에서 살면서 하루 12시간 농장 일을 하고, 일당으로 미화 10불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농장주가 제공하는 거주지는 대략 200스퀘어피트(5.6평)에 불과한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방에서 약 5-6명의 식구가 살아갑니다. 부엌은 없고, 화장실과 욕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새벽같이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남겨진 아이들은 방치되어, 자기들끼리 어울려 하루 종일 놀며 지냅니다. 왜냐하면 인디오들에게

는 이름을 등록시켜 주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회보장번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 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할 수도 없고, 병원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방치되어 있는 인디오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바하 캘리포니아의 여러 캄보 지역에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스페인어, 수학, 성경 등을 가르쳐 주고, 매일 점심을 제공하며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바자회를 통해서 마련한 선교 기금과 아이들이에게 나눠 줄 기증받은 옷들과 선물들을 한가득 싣고 12년 전부터 바하 캘리포니아 엔세네다 남쪽에 위치한 캄

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펜데믹 동안 뭇지 못하다 모처럼 만나서 반갑게 안부를 나누던 중 선교사님이 한 가지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처럼 매일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사역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서 멕시코 정부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질병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인디오들과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오들과 아이들에게 주민등록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호적을 가진 인디오 아이들이 공립 학교에 등록하여 다닐 수 있게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인디오 아이들에게 고난의 질병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 고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4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오셨던 선교사님 내외분의 사역의 짐을 일정 부분 가볍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부모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인디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더욱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나를 최고의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yosupbois@gmail.com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 공연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 고 임동선 목사 기념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 기념음악회를 21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었다. 임성진 총장은 "고 임동선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이번 행사가 뜻이

깊은 것은 임동선 목사님의 삶을 음악이라는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총장은 "임 목사님을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잘 구현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사도바울을 더욱 닮을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다. 이번 음악회가 한 시대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과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본교 전임총장) 지도로 시작한 이날 음악회는 에피소드1-어메이징 그레이스, 에피소드2-고난중에 기쁨, 에피소드3-사랑의 헌신, 에피소드4-소명의 실천 등 4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임동선 목사의 삶을 구현해 내었다. 이날 공연은 총감독에 본교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가 맡았으며 WMU오케스트라와 라크마 콰이어를 지휘했다. 이날 곡은 송수린 씨가, 연출은 클라라 신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 대표가 맡았다. 또한 테너 최원현 씨가 임동선 목사, 소프라노 신선미 씨가 황제순 사모, 테너 오위영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역을 맡았다. 그 외 조창현, 손종수, 오정록, 김민형, 스캇 신 씨가 출연했으며 방송인 유유경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으며 이동진 목사가 하나님 역을 맡았다.

(박준호 기자)



에피포도 28주년 기념 및 출판 & 제 2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에피포도 설립 28주년 기념 행사 성료

열네 번째 문집 출판 &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

1995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피포도예술과문학(대표 백승철 목사)이 설립 28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1일(토) 오후 4시 사모하는교회(Brea, CA)에서 열네 번째 에피포도 문집 '모서리에서 미끄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보라' 출판기념식과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백승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예배는 장인수 목사(갈보리교회 담임) 대표기도, 나삼진 목사(시인, Ph.D. 오렌지카운티 살롬교회 담임, Evangelia University 교수) 설교, 오소미 시인(겸안의 Dr. 에피포도예술인협회 이사, Eye Boutique Optometry 겸안과 원장)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나삼진 목사는 '든든한 안식의 그

늘(마 13:31-32)'이라는 제목으로 겨자씨처럼 작았던 에피포도의 성장과 목적 있는 사역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제 2부는 제14회 에피포도문학지 '모서리에서 미끄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보라'의 출판 감사가 있었다. 임영호 시인(목사, 소설가,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회장)은 서평 및 축사에서 "에피포도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책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였다. 제3부에서는 첫 시집 출판한 정정숙 시인(탄남)과 김성교 시인('섬이 없는 바다에는 고등어가 살지 않는다')에게 에피포도 백승철 대표가 출판

패 전달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특별순서로 제1회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KPCC)가 주최한 '영어 시조대회' 당선작 수상식을 통해 오렌지카운티예술학교(Orange County School of Arts) 7학년 리나 한(Lina Han)으로 상패와 부상금이 수여했으며 당선된 시조는 'Song of Song'이다. 제4부는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상한 작가는 다음과 같다. ▶시 부문 대상: 안호원 시인(한국 서울) 시집 '귀의' ▶시 부문 신인상: 박복희 시인(한국 서울) '그리움' 외 3편 ▶시 부문 신인상: 조미나 시인(한국 부산) '이불' 외 4편 ▶감상평설: 정정숙 시인, 수필가(미국 CA)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1 ▶포토그래픽 어워드: 서용선 사진작가(한국 서울) '풍경' 외 6편 이날 백승철 시인(사모하는교회 담임목사,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은 수상 작가들에게 "에피포도 수상 작가들은 모두 한 가족이며 글을 쓰고 예술을 하는 모든 행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사역이 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정인석 목사(하늘꿈교회 담임,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에 관한 모든 것은 www.epipodo.com에서 볼 수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새로운교회 설립부흥회에서 권오성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원안은 본교회 담임인 박창길 목사

새로운교회 설립부흥회 및 설립감사예배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

새로운교회(담임 박창길 목사) 설립부흥회가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창길 목사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22일(주일) 예배는 하승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권오성 목사(인천큰빛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 천국 간다(마 7:21-2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 목사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라 질문한 뒤 "우리에게 첫 번째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의 집이 있어야 한다.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진리로 살아 천국에 처소를 두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우리들은 말씀 안에

사는 자, 주님이 찾는 시야에 포착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진리 안에 살며 아버지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권오성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권오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본 교회 설립감사예배가 열렸다. 설립감사예배는 박창길 목사 인도로 시작,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영현 목사(기감 전 서윤원회 감독)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행 2:38-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양수용 목사(초대교회)가 담임목사 소개, 박창길 목사가 설립교인 소개 및 개척설립 보고했으며 김영현 목사가 설립을 선언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자마 대표)가 축사를, 권오성 목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박창길 목사가 감사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강성도 목사(하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은 아말렉의 전술을 심판하신다

(3면에서 계속)

아말렉의 메아리

하마스는 아말렉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마스가 지금 여호와와의 금지와 저주 아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도 아니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그리스도인이며, 많은 무슬림 팔레스타인은 하마스와 폭력에 반대한다. 하마스를 아말렉과 비교하는 게 대량 학살의 정당화 또는 암시가 아니다. 그럼에도 10월 7일에 하마스는 아말렉의 전술을 사용했다. 하마스가 아말렉처럼 싸우는 유일한 테러 집단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테러 단체는 여성과

어린이를 방패로 삼았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자들은 여성을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활용했고, 보코하람은 어린이를 "인간 폭탄"으로 악용했으며,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은 산부인과 병동에서 임산부와 아기를 살해했다. 하마스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방식을 모방할 위험이 있다. 아말렉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주인이시다. 여전히 폭력적인 사람들, 특히 무력한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이들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다. 아말렉 민족뿐 아니라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 내시고, 악인과 폭력배

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시 11:5).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가지 것 중에는 다음이 있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려고 치닫는 발"(잠 6:17-18). 정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쇠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들을 질그릇 같이 깨뜨리신다(계 2:27). 그는 하마스의 아말렉 사람들뿐 아니라 폭력을 사할 수도 자비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를 그의 팔아래로 끌어들이실 것이다. 때때로 예수님은 폭력적인 사람들을 개종시킴으로써 패배시킨다. 또 어떤 때는 아예 그들을 멸망시키시므로써 패배를 안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요청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정의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위한 기도도 가득한 기도서이자 찬송가인 시편이 있다. 지금은 저주하는 시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궁극과 관계없이 모든 아말렉인이 하늘 아래에서 제거되어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참으로 좋은 때이다.

by Peter J. Leithart, TGC

by Collin Hansen, TGC

톨킨이 팀 켈러에게 끼친 영향

(2면에서 계속)

정의는 나뭇잎 한 장만 그린 니콜을 비난한다. 자비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니콜에게 박수를 보낸다. 기쁘게도 니콜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나무가 이제는 복잡하고 절묘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건

선물이에요!"하고 니콜이 소리친다. 니콜은 단지 자신이 작은 나뭇잎 하나만을 현실 세계에 남겨둔 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결코 잎사귀를 잃거나 시들지 않는 나무가 있는 진짜 현실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켈러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가 죽은 후에도 기억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희망에 관한 것이다. 누구라도 성취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족하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 노력도 세대가 오고 세대가 가면서 잊혀지기 마련이다. 켈러는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잊혀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력, 심지어 최선을 다한 헌신도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될 뿐이

다." 단,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의 삶 아래 뒤에 참된 실재가 있다면, 그래서 이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면, 모든 게 달라진다. 모든 선한 노력, 심지어 가장 단순한 노력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구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고전 15:58). 바울이 말한 건 기독교 사역에 관해서였지만, 톨킨의 이야기는 바울의 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톨킨은 목회자로서 켈러가 단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담긴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교회설립 50주년 감사 뮤지컬예배
올해 희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0월 29일(주일) 오후 5시 Long Island University Tilles Center에서 창작 뮤지컬 'The Way'로 교회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886-4040

호삼종교연합체 겨울코트 공급
호삼의 연합운동으로 추운 겨울 전에 코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새 코트를 나눠주는 훈훈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코트는 한 사람당 한 벌이며 11월1일(수), 2일(목) 오후 4시부터 6시 30분 까지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Willow Grove YMCA, 3300 Davisville Rd, Hatboro, PA 19040

▲ 문의: 215-392-4900

뉴욕장로교회, 하비스트 페스티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아이들을 위한 하비스트 페스티벌을 10월29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체육관(실로암)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 706-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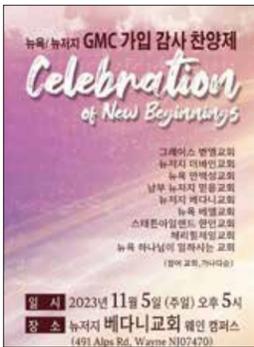
UMC 탈퇴 후 GMC 가입 교회 감사 찬양제 개최

뉴욕, 뉴저지 지역 총 9개 교회가 모일 예정

성서적 결혼의 정의와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연합장로교회(UMC)내 한인교회들 중에 절차를 거쳐 교단을 탈퇴하고 글로벌장로교회(GMC)에 가입한 뉴욕과 뉴저지 교회들이 "뉴욕/뉴저지 GMC 가입 감사 찬양제"를 11월 5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베다니교회(담임 백승린 목사) 웨인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총 9개 교회가 모여 찬양할 예정이며 뉴욕과 뉴저지 교회들 중에 7교회가 UMC를 탈퇴하고 GMC에 가입했으며, 교회 차원에서 탈퇴는 못 했지만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UMC를 탈퇴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GMC에 가입한 교회는 2개이다.

UMC를 탈퇴한 7교회 이름은 그레이스벤엘교회(장학범 목사), 뉴저지더바인교회(전 뉴저지연합교회, 고한승 목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 뉴저지베다니교회(백승린 목사), 뉴욕베델교회(김영식 목사),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목사),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 등이다. 개척하여 GMC에 가입한 교회는 남부뉴저지침음교회(박성민 목사)와



GMC 감사 찬양제 포스터

뉴욕하나님일하시는교회(박영관 목사) 등이다. 뉴욕만백성교회는 "너넨히 이기리라", 베다니교회(주은혜)는 "아멘 아멘 아멘", 뉴욕베델교회는 "주와 함께 가리라",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 베다니 교회(주영광)는 "Gloria", 체리힐교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바인교회는 "돌아오라", 남부뉴저지침음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뉴욕하나님 일하시는교회는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 할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제49회 정기총회 신.구임원 사진촬영하

신임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창종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9회 정기총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49회 정기총회가 10월23일(월) 오전 10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김희복 목사(직전회장) 인도와 기도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설교 박성구 목사(LA 주님의세운교회), 헌금기도 김희숙 목사(수석협동총무), 축도 김용걸 목사(증경회장)로 진행됐다. 박성구 목사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빌 1:20-21)'의 제목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은 진실한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내세 중심의 삶이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 살든 죽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날에 상 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장 이준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회의는 개회기도 김원기 목사(증경회장), 서기 김홍배 목사의 회원점명이 있었으며, 의장의 개회선언 후 회원채택에 이어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했다.

이준성 목사는 "1년 동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회장을 도와 힘차게 잘 전진한 임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 증경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50년 역사를 맞이하여 뉴욕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을 얻어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때까지 손에 손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회원교회정리보고, 범

규위원회보고, 이사회보고, 청소년센터보고가 있는 후 임원 선거를 했다. 임원선거 결과는 신임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창종 목사, 평신도 부회장 조동현 장로를 선출했다. 감사는 김재용 목사, 관케더린 목사, 김일태 집사가 선출됐다. 박태규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희년을 멋지게 개 교회와 뉴욕전체의 영적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종 목사는 "부족한데 지 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기대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회장님을 한 해 동안 잘 보필하면서 배우고 반드시 교회의 단합과 화합과 소통 등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에 수고한 이만호 목사, 김성은 목사, 김재용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회칙수정으로 제7조(권리) 제4항은 삭제하고 구헌법 원안인 "70세 이상 증경회장은 자동 회원이 된다"를 추가했다. 이준성 목사는 "지난번 교협에서 제명된 4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풀어주고 싶다"고 전하며 다시 복권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어 49회 회칙을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모든 순서는 신임회장 박태규 목사의 폐회 기도와 폐회선언으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기도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하우선교회, 뉴저지 팻팍 살리기 기도회 개최

풀 김시장 "하나님 이름으로 개혁하겠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팻팍 세이드파크(이하 팻팍) 살리기 기도회가 하우선교회(대표 장동신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10월 17일(화) 오후 6시 뉴저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서 40여 명이 팻팍에 헌신한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눈물로 기도했다. 장동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서정학 목사(노회장)와 한보영 자매가 찬양을 인도했다. 이어 뉴저지교협 회장 김동국 목사가 기도했다.

특별히 풀 김 팻팍 시장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기도회 내내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계속 흘렸으며, 기도회가 끝나고 "내 안에 있는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이곳에 내려놓고 간다"며 기도회를 개최한 뉴저지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올바르고 좋은 정치인들을 잘 생각하여 뽑아주고 계속 지지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가족

이나 지지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 있지 못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동신 목사는 "쉬지 말고 기도 할 이유(데살로니가전서 5:16-18)"라는 제목으로 전한 설교에서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기도 없이 일이 잘되면 내가 했다며 교만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일이 잘되지 않아도 일어 영 자매가 찬양을 인도했다. 이어 뉴저지교협 회장 김동국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진행된 1부 연주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의 창조 역사를 음악으로 들려준 뒤 헌금 시간을 갖고 박현숙 권사가 헌금 기도를 드렸으며 근속자 표창식을 가졌다. 이날 20년 근속표창을 양정임 권사, 홍제니 권사, 이정현 반주자, 10년 근속은 전귀분 권사가 받았

(정리: 김재상 기자)

영생장로교회, 창립 42주년기념 임직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는 임직자"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창립 42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10월22일(주일) 오후 4시에 본 교회 제 1예배실에서 드렸다.

백운영 목사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주상용 장로, 찬양 시운찬양대, 설교 백운영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백운영 목사는 '섬김을 위한 직분 (에베소서 4:12-13)'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직분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은혜로 채워지는 임직자 한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집사 안수 서약문과 장로, 집사의 안수기도 후 백운영 목사의 공포가 있었으며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축가, 이용걸 목사의 권면, 김성철 목사와 정승환 목사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진리의 말씀

을 옮겨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힘쓰며 섬기라"고 권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임 박형선 장로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앞선다. 저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우들에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과 지혜로 신앙을 굳건히 하며 교우들을 돌보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답사했다.

이어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임직자들이 교회에 기쁨을 증정했고 최혜근 목사(몽고메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창립 42주년기념 임직예배 마친 후 사진촬영 하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천지창조' 찬양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천지창조"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20회 정기연주회가 10월22일(주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됐다.

단장 이은숙 권사의 인사와 김천수 목사(뉴욕방주교회 담임)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제로 총 3부로 진행됐다.

이은숙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단원은 91명으로 연주회에는 78명이 참석했다. 연령대는 60대~80대로 다양하며 20년 동안 단원으로 활동해온 분들도 있고 보통 10년 이상 함께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악보를 들고 연주회를 하지 않았으나 천지창조 곡이 쉬운 곡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악보를 들었다"며 단원을 소개했다. 또한 초창기 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을 지도해 준 양재원 목사를 감사한다"며 "찬양을 받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1부 연주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의 창조 역사를 음악으로 들려준 뒤 헌금 시간을 갖고 박현숙 권사가 헌금 기도를 드렸으며 근속자 표창식을 가졌다. 이날 20년 근속표창을 양정임 권사, 홍제니 권사, 이정현 반주자, 10년 근속은 전귀분 권사가 받았

다.

2부에서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표현했으며 3부는 에덴동산에서 행복한 한 쌍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뒤, 민병욱 목사(뉴욕 평안 장로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이날 연주회는 1988년 곡상수 교수에 의해 번역된 한국어 가사로 찬양하고 합창부분은 이가영 부지휘자의 여성 4부 편곡으로 연주되었으며 대현스 크린에 펼쳐진 멋진 영상과 함께 한창은 감동과 감격을 더해 주었다. 또한 양재원 지휘자와 더불어 이가영 부지휘자, 소프라노 민한별, 테너 최호중, 바리톤 서대원이 뉴욕권사선교합창단과 함께 찬양했다.

양재원 지휘자는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악보를 외워 찬양하기 때문에 치매가 사라지고 두 시간씩 서서 찬양하므로 관절염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이 많으니 찬양을 잘하는 권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자격이 되시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2024년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루아교회 방문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찬양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분은 단장 이은숙 권사 917-648-1876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주일) 오후 2(월) 오전 3(화) 정오 4(수) 오후 5(목) ~ 6(금) 8(주일) 저녁 9(월) 오전 9(월) 오후 9(월) ~10(화) 11(수) 저녁 13(금) 오전 14(토) 오후 15(주) 저녁 17(화) 오전 18(수) 오전 19(목) 오전 20(금) 저녁 22(주) 저녁 23(월) 오전 23(화) ~25(목) 오후 26(목) 오후 28(토) 오후 30(월) 오전 31(화) 새벽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세계 청소년 마약감시단 (World Drug Watchdog) 서울대회 (대회장 홍성선 목사) 010-9977-5606
전남 광주 빛교회(김선주 목사) 010-3145-6682
주최 : 한기여총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서울 풀이있는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서울 서초 Unit and Core 기도성회 주최 : Tent Makers Mission 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정기노회 장소 : 서울강남세곡교회 (박익서 목사)
서울 주안양복음교회 (이은혜 목사) 010-8215-8295
서울 능려산교회 (임은선 목사)
대한민국 국회교회 (이수용 목사) 국회국기기도회 010-2508-3344
장소 : 여의도 컨벤션호텔 청국청
서울여전도회관 주최 : 국제전부흥사(이시정 강령숙 목사) 010-9260-1091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1
세계 여성지도자 정책심포니 (World Women Leaders Policy Symphony) (대표교문 정성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장소 : 서울 Press Group Center
District Office Passport Issuance
군포 돌민동산교회 (이세환 목사)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광 목사) 010-8331-3431
대전 중앙장로교회 (전성숙 목사) 010-7291-3377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서울 삼각산선신수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010-3709-4968
남경산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성 목사) K Blessing MT
서인천중앙교회(정사무열 목사)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 서울 신라호텔
서울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커넥션 참석자들이 특송하고있다

코너스톤교회 커넥션 성료 2023 커넥션을 끝으로 20년 사역 마쳐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2023 커넥션을 끝으로 커넥션 사역이 성료 됐다. 이종용 목사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이런 귀한 섬김을 마음에 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20년간 귀한 사역을 하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커넥션을 통해 많은 간증과 결단이 있었다”며 “20번째 커넥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신 것에 그리고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성령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커넥션은 코너스톤 교회가 중 소형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의 사명과 임을 위해 ‘하나님과의 연결 동역자들 간의 연결’이라는 모토로 해마다 15팀의 목회자 가정이 초청됐다. 커넥션은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2박 3일에 걸친 ‘요세미티’ 방문에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식을 경험하기도 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18일(수)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 파송예배는 이종용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커넥션 참석자 중 8명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원 목사(호산나평화교회), 유동근 목사(부산온누리교회), 이현경 사모(한마음교회), 김연재 목사(네쉬빌 다리놓는교회), 손교훈 목사(독일위셀도르프선교교회), 유럽코스타 상임회장, 홍민표 선교사(캄보디아), 박현실 사모(시애틀선한목자교회), 이정훈 목사(수원원전교회 내 원더교회)가 간증했으며 커넥션 참가자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함께 불렀으며 본교회 목장들이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파송예배는 이종용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이엠교회 창립14주년 기념 '교회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아이엠교회 창립14주년 기념 '교회의 미래' 세미나 "종교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신앙인으로 채워지길"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 창립14주년 기념 '교회의 미래' 세미나가 지난 15일(주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본지 기자인 박준호 박사(문화교육학)가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박사는 “1903년 인천에서 갤리호가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이민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며 이민교회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한 뒤 “1945년 해방이 된 후에도 한인교회가 세워졌으며 1965년 존슨대통령이 이민법에 사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민문화가 열렸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한인이민교회 수가 늘었다.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로는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킨즈장로교회 등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며 대표적으로는 동성애와 마약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 및 콘텐츠들은 곧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며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서 미국내 한인기독교인들이 70%대에서 50%대로 줄

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숫자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와 교인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교인수 감소현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을 내리며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할 수 있다. 종교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신앙인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예수 그리스도' "지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느끼고 기억하자"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10월 20일(금) 오후 7시30분 진실한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남성찬양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찬양의 밤을 개최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는 이동진 목사의 인사말과 기도, 기타리스트 김진수 집사의 오프닝 연주로 막을 올린 찬양의 밤은 정종원 목사(I Am Church 담임), 이은수 목사(시에라 호스피스 원목), 조영석 목사(1.5세 찬양 사역자), 지명현 목사(Soriel for Church & Mission)가 단에 올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 했다. 이어 단에 오른 이동진 목사는 '메멘토 모리의 계절'(신 16:13-15)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의 삶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찬양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기억하기 원한다."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강권했다.

이날 찬양의 밤은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단에 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를 함께 부른 뒤, 이동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찬양의 밤 마지막 순서로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단에 올라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 우로부터 김진수 기타리스트, 지명현 목사, 이은수 목사 부부, 조영석 목사.



주사랑나눔선교합창단원들이 청단음악회를 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

우크라이나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후원의 밤 가을하늘을 수놓은 나눔선교합창단 창단 음악회

World Share USA(미주대표 강태광 목사)가 주관한 주사랑나눔선교합창단 창단 음악회가 10월 21일(토) 오후 7시 새누리교회 구성전에서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고아 및 전쟁 미망인 돕기 후원의 밤을 겸하여 진행된 음악회는 1부 예배와 2부 음악회로 진행됐다.

월드쉐어 홍보이사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수호 목사(올림픽 장로교회 담임) 개회기도,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설교, 광견섭 목사(예은 장로교회 담임) 축사와 강태광 목사의 인사로 진행 됐다.

주사랑나눔선교합창단의 합창과 남성 중창단 소노로스의 찬조출연으로 이루어진 2부 음악회는 5개월 전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선교합창단의 첫 연주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음악회로 열려, 감미로운 음악과 가을 향기 가

득한 노래를 선사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월드쉐어는 후원자의 밤 수익금으로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위한 기금을 송금했고 앞으로도 계속 송금할 계획이다.

강태광 목사와 함께 국제군종목사 활동을 같이 했던 우크라이나 키르치 목사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기독교인 연합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키르치 목사는 군종감(육군 중령)으로 전역 후 전쟁이 발발하자 전방지역 군인과 군종목사 활동 지원, 전몰장병 가족 돌봄, 전쟁미망인(고아) 돌보기 등 전쟁지역 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전방지역 난민 돕기에 관한 자세한 것은 (323)578-7933 (월드쉐어 USA)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동양선교교회 패밀리 페스티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패밀리 페스티벌이 '노아 메이커스(방주를 만드는 사람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28일(토) 오후 1시, 11월4일(토) 오후 1시 교회 본당과 교육관에서 열린다. 기독교콘텐츠 '히즈쇼'와 동양선교회가 함께 하는 이번 어린이 축제는 성경박물관 체험과 '캐릭터 바운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뮤지컬 입장료는 1인당 10불.

▲ 문의: (323)466-1234

선교사 자녀 장학생 모집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 용 집사)가 선교사 자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중인 해외 한인 선교사 자녀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30일까지 본연합회 홈페이지(ockca.org)를 통해서, 또는 본 연합회가 선정한 OC지역 교회 추천을 받아서 자기소개와 부모의 사역 소개가 포함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info@ockca.org)

캄보디아후원찬양선교음악회

캄보디아후원찬양선교음악회가 29(주일) 오후 7시에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521-0991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은퇴 취임 감사예배

달라스중앙감리교회는 은퇴 취임 감사예배를 11월5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이번 예배는 이성철 본교회 3대 담임목사를 비롯한 9명의 장로들이 은퇴하며 배연택 4대 담임목사가 취임한다.

▲ 문의: (972)258-0991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 무료 공개 강의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 무료 공개 강의를 11월 4일(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은혜한인교회 미라를 센터 3층 310 강의실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제임스 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하는 이번 강의에서는 비영리 단체 설립 및 IRS 와 주정부로부터 Tax Exempt 승인을 받는 절차와 함께 NPO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Center)

홀러튼장로교회 복콘서트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여 '젊은 지구론에 대한 고찰과 비평' 복콘서트를 29일(주일) 오후 1시에 갖는다.

▲ 문의: (714)446-9010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배울수 있는 시간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공동주최한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을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김태형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의 목표는 첫째, 현재 장애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둘째,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성찰하고 배우는 것 셋째, 각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에 장애인의 소속감을 일깨우고 하나님

의도하신 방식으로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케이워렌 사모(새들백교회 동동창립자)가 '교회와 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했으며 배우는 자매와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다. 둘째날 오전에는 크리스티나 김 박사(칼스테이트 LA)가 '크리스천 교육의 개별화 전략', 사라 리 교사(흙킨슨 초등학교)가 '통합수업: 교실에서 교회까지', 장영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하나님 형상의 회복, 장애인 사역', 조두민 목사(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가 '장애선교와 교회성장', 조미란 전도사(은혜한인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박정민 전도사(베델교회)가 '토탈 커뮤니케이션 예배디자인', 릭 맥린 목사(그레이크뮤니티교회)가 '장애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적 진리들' 등을 강의했다. 또한 김명숙 전도사(남가주사랑교회), 선리 전도사(ANC온누리교회), 박현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주 이민 한인교회 장애사역의 통합 예배 현주소와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CCM페스티벌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CCM페스티벌이 22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스튜디오에서 '함께'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송중호 목사 기도와 찬양 사역자 조영석 목사(본회 CCM분과위원장) 사회로 열린 페스티벌은 허지애, 조영석, 오버플로우 찬양팀, 캄빈 박, 박수진 등이 무대에 올라 찬양했다. 이날 조영석 목사는 "오늘 출원

자들은 모두 남가주에서 찬양으로 사역하는 자들"이라며 "남가주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진실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찬양사역자들이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주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남가주에서 사역하는 찬양사역자들도 활동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CCM페스티벌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신대 모세오경 기증받았다... “아시아 최초”

라스 부부 17세기 제작된 토라 사본 총신대에 기증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가 토라 사본을 기증받았다. 총신대는 지난 18일 ‘하나님의 고대 도서관(God’s ancient Library)’ 설립자인 켄 라스에게 토라 사본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토라는 보편적으

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의미한다.

총신대에 따르면 라스가 기증한 토라 사본은 17세기에 제작됐고 1억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지녔다. 학교 측은 아시

아에서 토라 사본을 소장한 곳은 총신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라스는 세계 신학교와 박물관 등에 지금까지 토라 사본 80여개를 기증했다고 알려졌다.

기증식은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대원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박성규 총장은 라스 부부와 이번 토라 기증의 가교 역할을 한 피터 릴백 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증식 이후 참석자들은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릴백 총장은 ‘여호수아가 그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수 5:13-6:2)를 주제로 설교했다. 라스 부부의 토라 특강도 열렸다. 라스 부부는 기증한 토라 사본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사적 가치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특강 이후 신대원생 150여명은 토라 사본을 직접 보고 만졌다.



외로움 돌보고, 고독사 막는다

교회·지자체 동참 연내 돌봄대상 4000가구 돌파할 듯

강원도 춘천시는 이달 말부터 지역내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에 놓인 50가구를 대상으로 이른바 ‘우유 안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 가구에 주 3회 우유를 배달하면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우유배달은 협업사인 매일유업에서, 우유는 개인 후원자가 후원한다.

우유 안부 활동은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롯

해 강원도 속초와 전남 완도, 경남 밀양·진주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다. 돌봄대상 가구만 3970가구로 연내 4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유 안부 활동의 핵심엔 교회가 있다. 2003년 서울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가 지역내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쏘아올린’ 섬김 사역이 시초다.

2015년 ‘사단법인 어르신안부돌봄’을 설립하면서 지역을 초월한 ‘우유안부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캠페인 활동은 동네 독거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 배달원이 배달한 우유가 문 앞에 그대로 있을 경우, 최악의 상황인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호용한 목사는 23일 “고독사는 여전히 사회가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며 “특히 정보 부족, 건강 악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의 고독사 발견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교회가 앞장서서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로 분류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을 기록한 이래 2020년(3136명) 2021년(3603명) 2022년(484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닥쳐온 기후위기, 한국교회 선택 따라 미래 달라져”

한교총 기후환경포럼 열려

기독교인들이 기후환경 보전을 위해 ‘영육이원론’에 빠졌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판단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후환경포럼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장운재 이화여대 교수는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대 경구가 기후환경에선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려로 발제를 시작한 장 교수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고정관념을 우려하며 영지주의 이단의 사례를 언급했다.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극단적 영육

이원론을 제시하며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

장 교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지주의 그리스도인을 닮았는데 극단적 영육이원론에 빠져 구원은 구령(영혼 구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세계는 잠시 지나갈 뿐이고 시온성을 향하는 나그네일 뿐이라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들어가는 천당만 가르치니 방화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100여 가지의 생물 종이 사라져도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영지주의에 맞서 신

앙의 바른길을 확립한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걸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생태 신학은 신신학이 아니라 원(原)정통신학”이라고 규정했다. ‘교회의 생태적 회개’도 촉구했다. 장 교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기독교인이 먼저 눈 떠야 한다”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생태적 회개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회개한 기독교인은 ‘베는’ 기도에서 ‘비우는’ 기도로 전환해 불평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신앙적 삶을 살자”고 권했다.

이영훈 대표회장도 영상을 통한 격려사를 통해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기 좋은 기후환경을 지닌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세계 돌봄의 사명으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교총은 올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환경주간(6월 4~10일)을 선포하고 설교문과 기도문, ‘나부터 실천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교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1년간 품고 기도한 VIP, 한자리에 초대”

지구촌교회, 오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도 축제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는 오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 전도 축제 ‘블레싱 2023’을 진행한다. 지난 1년간 품어온 VIP(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취지의 행사다. 교회하는 소그룹 ‘목장’ 단위로 작정한

VIP 인원이 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8번의 집회로 열리며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해 최성은 지구촌교회 목사, 탤런트 김수미씨, 유튜브 하준파파(본명 황태환) 등이 감사

로 나선다. 심어승라이터인 여행스케이치 리더 조병석씨,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씨 등의 찬양과 간증 시간도 펼쳐진다.

성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하잠뎀’ 기도(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기 처소에서 하는 기도)를 하며 준비 중이다. 이 교회 사역의 바탕을 이루는 ‘목장 교회’들도 VIP를 위한 초대 선물과 편지 전달, 기도하며 이들의 필요 섬기기, 차 마시며 교제하기, 초대 등 4단계로 이뤄진 전도 행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성은 목사는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회심한 성도들이 지구촌교회뿐 아니라 지역 교회로 잘 연결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말씀에 음악을 더하니... 예배가 젊어졌다

여의도침례교회 청년세대 위한 수요필워십 호응

“한 주의 가운데 날인 수요일,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예배가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박민균(29)씨는 지난 18일 저녁 서류가방을 메고 교회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로 4번째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을 때를 제

외하고 팬데믹이 끝난 뒤로는 회사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교회에 매주 출석도장을 찍고 있다. 그가 수요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젊은이들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의도침례교회(국명호 목사)는 2016년 6월 기존 수요예배를 청년세대를 위한 예배로 전환했다. 평소 여의도를 오가는 젊은이와 직장인이 많음에도 그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던 국명호 목사가 고안해낸 예배(수요필워십)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와 음악, 영상세대의 눈에 맞춘 전면 LED 배경과 음향 시설을 구비해 ‘젊은 예배’를 선보이고 있다.

찬양 인도자로 나선 밴드 몽니의 리더 김신의 간사는 ‘영적 전쟁’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삶과 직장의 환경,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뽀나뽀나 울라간 삭개오처럼, 인파가 몰려도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투병 앓던 여인처럼, 크게 소리쳐 주님을 부르짖은 바다메오처럼, 수많은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요필워십은 CCM 음원 발매 사역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너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에 이어 다음 달 ‘기쁜 소식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단들의 유혹에 빠진 한국 언론들’ ...

교회언론회, 이단 광고 실는 메이저 언론 행태 꼬집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영주 목사)가 최근 메이저 언론사에서 사이버 이단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단들의 유혹에 빠진 한국 언론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기쁜소식선교회(박우수) 등의 광고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메이저 언론이 이단들이 던져주는 광고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 언론이 이단·사이비 광고를 견제했던 모습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과 수익만을 위해 분별없이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단 광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해서 그렇게 하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며, 그가 중보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련된 성령의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홀로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하셨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도록 인도하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곧 하나님은 간구할 때 간구하는 목적과 계획을 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이처럼 기도할 때 올바른 목적과 계획을 갖도록 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 성령은 기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

도하도록 중보(intercession)하실 뿐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음과 같은 일을 계획하도록 인도하신다. 첫째, 간구와 기도를 통해 얻는 모든 성공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신자들의 열망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성령의 특별한 도움과 후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이다. 그런

기도는 부패되고 가증한 것이 된다. 둘째, 성령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간구로 그들이 더욱 거룩해짐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목적이 없는 곳에서는, 비록 기도의 내용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비와 은혜와 약속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랑의 열매를 간구할 수 있지만, 이런 목적들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

금 계속해서 이런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세워 놓은 모든 목적들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욕망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younsuklee@hot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22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에 있어서 최대 시험거리인 금권(金權)

한인 세계선교는 기독교인 수 대비 비율로 볼 때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독보적이다. 세상에 한인교회처럼 선교에 열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한인 선교사들은 영성, 지성, 감성, 야성 등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다. 한민족 특유의 돌파력과 속도감도 있다. 선교사를 보낸 단체나 교회들도 그 열심을 알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도 짙다. 한인 선교의 어두운 면이 있다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언급한다면 금권선교이다. 사역자와 선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는 물질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왔다. 오죽하면 어떤 선교지에서는 교회를 정화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인 선교사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부끄러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우리 한인 선교의 양태를 바라보는 현지인 리더십과 서구적 시각이 좁지만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점차 피선교지의 역사책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약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COVID19로 선교 환경이 바뀐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물질 선교를 앞세운 사례

우리 주변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금권(金權)적 선교 사례가 종종 있다. 모 선교사는 선교 헌신을 하기 전 회사

에서 근무했다. 그는 세상 물정에 이해도가 깊었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후원금이 넉넉했다. 그의 사역 방법은 특이했다. 선교지에서 동역할만한 현지인 일꾼을 찾아 계약을 한 것이다. 내용인즉,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처우(處遇)를 문건으로 작성한 후 사인하게 하였다. 이를테면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수를 몇 명

한시적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건적이지 않아야 한다.

금권을 사용한 선교지 교회

일반적으로 한인 선교의 패턴은 현지인을 양육한 후 신학 훈련을 받게 한다. 그 후 목사 안수를 주고 전임 사역자로 뛰게 한다. 저들에게는 학생 때

부터 장학금을 주고 목회를 할 때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생활이 어렵다. 이뿐 아니라 교회당을 지을 때도 후원교회의 도움 속에 건축한다. 주도자가 현지인이 아니라 선교사의 후원교회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된다. 재정적 부담이 끝이 없다. 어느 불교전에서 회심한 성도는 자기 교회가 너무 어려워 부처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빌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물질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능력이 있다. 시작부터 저들을 의존적으로 이끌면 장성해서도 자립하기 힘들다. 교회적 선교사역

가정교회는 오히려 부흥했다. 바로 자립신앙 때문이었다. 1727년 모라비안들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걸쳐서 선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저들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중에는 기술공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자립하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공무원 월급 받는 식의 유럽식 관제교회는 거의 다 죽었다. 자립 선교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삼자(三自) 삼자 원리(三自原理)이다. 이것은 원래 헨리 벤(Henry Venn)과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라는 사람들이 주창했다. 하

은 어떠한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도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대표적 사역이라면 교회 창립 10, 20,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선교지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한다. 사실 제3세계는 문화와 경제력이 낮아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교회당을 세울 수 있다. 문제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리고 교회당 건축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돈으로 하는 선교는 위험성이 크며 세월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 쉽다.

자립 선교 역사와 신학

자립적 선교신학! 이는 철저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이 자립적이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카타콤 교회는 살아남았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중국

지만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가 21년간 중국에서 선교한 경험을 토대로 소화하여 산출해 낸 실천원리라 할 수 있다. 네비우스는 1890년 내한했다. 그는 당시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인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원리를 강의하였다. 그 내용이란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다. 이 삼자원칙은 조선인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후에 한국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원리로 작용되었다.

한인 선교의 나아갈 방향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들 나라보다 더 가난했다. 하지만 외국 선교사의 재정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온 한국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선교지에서 비자립적이며

로 적용되어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월급 주는 형태는 정말 속고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5만여 한인교회가 복음 일꾼 양성은 소홀히 한 체 물질로 선교지 교회당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소망이 없다. 철저히 일꾼 양성에 초점을 맞추되 현지 교회당을 세울 때도 절대 선교지 사람들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맺음 말

선교사는 누구나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원한다. 자기를 파송한 단체나 후원교회가 영웅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 그렇게 딱딱해서 될 일인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열매를 따 먹을 수 없듯이 선교사역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감에도 사역적 결과가 미미할 때 선교사는 조급하게 된다. 그래서 간혹 물질로 프로젝트 형 사역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것은 단기간에 가

빛이 강한 곳에서는 그림자도 짙다.

한인 선교의 가시적 성과 뒤에는 물질이라는 어둠의 요소가 있다.

금세기 선교는 금권을 최소화하며 현지인들이 3자 정신으로 자립하게 해야 한다.

시적인 모양새를 드러내며 선교사가 부활 언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념해야 한다. 선교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을 얻어 양육하고 그들이 선교의 주체인 성령의 통치 아래서 자립적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 거룩한 사역에 금권사용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 사용하면 몸에 이로운 보약과 같되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되기도 한다. 물질은 사역에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임을 우리는 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3)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루이스의 형 워런 해밀턴 루이스 소령

C. S. 루이스의 삶에 큰 복은 좋은 형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루이스보다 세 살 많은 워런 해밀턴 루이스는 평생 C. S. 루이스의 친구요 조력자로 살았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복이 되는 두 사람을 언급했다. 하나는 자기 뜻을 다 받아준 가정부, 그리고 형 워런(Warren)을 말했다. 그만큼 워런은 동생 C. S. 루이스에게 좋은 형이었다. 유명한 동생 C. S. 루이스에 비해 형 워런(Warren)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다. 워런 루이스의 삶을 추적하여 정리했던 마조워 램프 미드(Marjorie Lamp Mead)는 워런 루이스의 일기장이 아니면 그의 삶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워런은 동생의 유명세와 성공에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려한 동생을 돕는 비서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워런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의젓한 형이었던 것 같다. 두

형제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전혀 같음이 없었다. 세 살 많은 워런 루이스가 형으로 동생을 잘 돌봐 주고 수용했던 듯하다. 형제는 공부도 같이하고 놀이도 같이하며 좋은 친구로 성장했다. 특히 아버지의 배려로 어머니와 셋이서 바닷가에 서 한 달간 여름 휴가를 보낸 것은 둘의 우애와 우정을 배양시킨 좋은 기회였다. 학생으로 워런 루이스는 탁월한 것 같지는 않다. 마조워 램프 미드는 워런 루이스가 게으르고 불성실한 학생의 모습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런 루이스는 커크패트릭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이 사관학교의 입학은 워런 루이스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워런 루이스는 1차대전의 발발로 생도 시절을 짧게 보냈다. 생도들은 통상 2년의 생도

생활을 보내며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워런 루이스는 9개월 만에 졸업하고 임관하였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는 프랑스 최전방에 배치를 받았고 전투에는 벨기에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근무했다. 이런 군 생활에서 휴가를 얻으면 언제나 고향에 돌아와 동생과 더불어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그가 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워런 루이스도 아버지와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 그가 휴가 시간을 고향에서 보내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아버지와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고 한다. 이것은 동생 C.S. 루이스도 같은 상황이었다. 멀리 중국 상해에 근무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워런 루이스는 18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대위(Captain)로 전역했다. 우리는 통상 워런 루이스를 소령(Major)으로 기억하는

데, 그는 나중에 2차대전이 발발하자 재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했는데 그때 소령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다가 1941년에 예비역(Reserve)으로 전향했고, 소령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워런 루이스는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다.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은 좋았지만 동생이 무어 부인(Mrs. Moore)과 함께 살고 그녀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에 불편했다. 특히 착한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힘들게 하는 무어 부인의 무례함에 대하여 아주 힘들어했다. 워런 루이스는 무어 부인의 집착과 무례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워런 루이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함과 부정적인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어 부인과 동생의 관계였고, 또 하나의 불편하고 부정적인 모습은 자신의 알코올 중독증이다. 아마도 그는 군대 생활 중에서 알콜 중독증을 얻은 듯하다. 그는 이 중독증에서 헤어나기

를 기도하며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워런 루이스는 게걸스럽게 책을 읽는 왕성한 독서가였다. 그는 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글을 읽었다. 소설, 시, 드라마, 역사, 전기, 문학 비평 등등을 열심히 읽었다. 그렇다고 신앙 서적과 신학 서적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워런은 왕성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성실한 일기 쓰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일기를 정리했던 책이 23권 분량이었다고 한다. 그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 프랑스 역사를 다룬 영광의 세기(The Splendid Century) 등 십수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동생의 필력에 가리긴 했지만, 워런 루이스도 상당한 수준의 책들을 저술한 작가였다. 워런 루이스는 자신의 일기나 책 저술을 위한 글쓰기 외에 동생의 비서로 동생을 위해 많은 글을 썼다. 동생이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어서 타이핑을 못했고 형인 워런 루이스가 동생의 비서로 동생의 편지나 독자들이 보내는 편지나 질문에 일일이 답장을 보냈다. 그가 동생 CS 루이스의 이름으로 타이핑을 해서 보낸 편지가 1만 2천 통이라고 알려졌다. 워런 루이스는 동생 C. S. 루이스와 함께 독서클럽 잉클링

s(Inklins)에서 활동했다. 역시 동생을 돕는 역할이었다. 호스트였던 동생을 대신해서 차를 끓이고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왕성한 독서가답게 책이나 글을 읽고 발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그는 특유의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잉클링스의 유대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워런 루이스는 C. S. 루이스에게 최고의 친구였다. 아울러 두 형제는 친구들이 거의 같았다. 동생의 C.S. 루이스의 친구들이 거의 형 워런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잉클링스 회원을 비롯한 루이스 형제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워런 루이스는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배려와 관용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었다. 워런 루이스는 신앙인이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가졌다. 그는 평범한 크리스천처럼 영적 갈등과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만지셨고, 그는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징계에 보인 하나님의 사랑 (호13:1-16) 찬 310장

본문에 에브라임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에브라임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 자랑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재반함으로서 교묘한 우상 숭배로 떨어졌습니다.(1-2) 둘째, 그 결과는 허무 고통, 영적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구름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같고,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쪽정리와 굴뚝의 연기 같습니다.(3) 셋째,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7-8절에 나온대

로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그리고 암사자처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징계가 따름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고멜 같은 에브라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내심으로써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 복됩니다.

화 참 연합의 구원 (호14:1-9) 찬 439장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실물교육으로 음행의 죄를 무조건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풍성한 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슬같이 임하여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견고해 되리라는 것입니다.(5) 그 가지는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으며 소성하는 곡식이나 활짝 핀 포도나무처럼 되리라고 하셨습니다.(6-7)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이런 모든 변화

는 신자가 받을 풍성한 복의 그림들입니다. 둘째, 근본적 회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의 결과로 온 것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가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일이 에브라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2) 우상과 상관없고 오직 주로만 열매를 맺으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참 모습입니다.(롬12:1) 바로 그 놀라운 연합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9)

수 요엘의 탄식 (술1:1-20) 찬 331장

북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엘은 그 시대에 왜 탄식했으며 어떻게 하라고 권합니까? 첫째, 탄식. 때때로 재앙이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우듯이 외적 침략으로 그들이 파멸할 것을 내다본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4) 경제적 불황이 모든 반면, 특히 가정에 영향을 끼쳐 혼인의 노래가 사라지고(8) 인간 희락이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12)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이 없어 고민하게 되는 비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평안가

운데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회복 방법. 선지자의 탄식 속에 보인 희망의 빛은 바로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고 굶은 베를 입고 회개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13) 그 정황을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처럼 비참한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은 책임자로서 의 참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목 여호와의 날 (목2:1-32) 찬 543장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 앗수르가 침략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날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째, 그 날은 에덴동산을 황무지로 바꾸는 슬픈 날입니다.(3) 외적의 침략은 강포하고 무자비하여 흑암과 같이 되며(2) 백지장처럼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4-6)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복은 진실된 회개에 있음을 보여주

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가면 됩니다.(12) 금식 일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곳에 모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소망의 길이 생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뿐 아니라 모든 일의 중심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28-32) 이것이 오순절 역사의 재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금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골3:1-21) 찬 331장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서 우리는 주님 교회의 장래를 봅니다. 첫째, 남은 자의 회복을 봅니다. 앗수르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예언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교회를 보인 것입니다. 둘째, 열국을 심판하심을 봅니다. 그 회복은 일시적으로 사용된 열국 심판으로 나갔습니다. 만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받는 교회를 보인 것입니다. 셋째, 시온에 거하시는 하

나님을 봅니다. 진정한 회복은 민족 독립과 육적부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겠다고 하신대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시온이신 그리스도안의 복을 아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토 작은 죄 (암1:1-8) 찬 195장

웃시아와 예로보암의 경제적 부요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은 드고아 목자, 아모스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일은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경고입니까? 이방의 다메섹(3-5), 블레셋(10)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권위를 꺾기 위해 강국의 침략에 사로잡히고 불로 망케하신다는 것입니다. 존폐가 달린 심판이기에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원인은 작은

죄로써(6,9,11) 우상숭배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없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나온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기독교교육 (36)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자원(2)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성령님, 교육환경, 교과과정(교재) 이외에도 공간,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자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교재의 개발과 구입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는 지역교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재개발에 충분한 인력적, 재정적, 교육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학과 비전에 부합하는 교재를 선정하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교단출판사가 생산하는 교재를 사용하면 신학적인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판사들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신학적 건전성을 검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교육적인 전문성을 갖고 교육철학에 따라 교재를 발행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연령에 따른 개발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을 구성합니다. 출판사가 만드는 교사지침서도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교회가 교사지침서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사는 교재를 멋지게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원하고 아끼는 교과과정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교회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자원 중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많이 활동하며 감각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른들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에 의해 교회의 프로그램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구성원 그리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기 전에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건물과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맞아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부족하지만 증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가구나 기구를 제거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임들의 스케줄을 지혜롭게 조정하여 한 공간을 여러 그룹이 서로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당 근처의 학교, 사무실 건물, 가정, 숙박시설, 또는 다른 교회건물 등의 임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사유화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그룹이 활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사유화를 위한 장식을 벽면의 일부

나 하나의 계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니다.

두 그룹이 한 공간에서 학습하면 다른 그룹의 소리가 소음이 되어 학습을 방해합니다. 바닥에 카펫을 깔거나, 벽이나 천장에 소음을 흡수하는 장치를 하거나, 그룹 사이에 음악을 작은 소리로 켜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역에 필요한 가구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학습자의 연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학습활동의 종류에 따라 책상을 다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는 직사각형으로 배치해도 되지만, 교제나 토론을 위해서는 둥글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공간을 사용하는 그룹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접어 놓거나 포개어 놓을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의 한쪽을 비워놓으면 참석자들이 섞여 활동하고 교제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일 년에 한 차례씩 이루어집니다. 예산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세울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윤리적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중차대한 일로서 한두 사람이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수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계 담당자가 예산수립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회계년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사역팀의 리더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필요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역팀의 리더들이 필요한 내용을 예산 사역팀에 제출합니다. 예산사역팀은 사역팀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종합하고, 협상과 조정을 거쳐 필요한 금액들을 산출하여, 그 금액들을 바탕으로 예산초안을 만들어 교회운영사역팀에게 제출합니다. 교회운영사역팀은 예산사역팀이 제출한 예산초안을 살펴보고 토론과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예산안을 만들어 회중에게 제시합니다. 회중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인준함으로써 예산이 책정됩니다.

교과과정, 공간, 시설, 가구, 사무용품, 그리고 재정은 기독교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지도자들은 교회교육의 기관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은 성령님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자원들이 순조롭게 공급되리라 믿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필리핀

복음의 나팔수

1. 1 달러 수업료 인상

2022학년 졸업식은 지난 2023년 6월 8일에 하였고, 2023년 새 학기는 8월 21일에 하였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서 여름 보충 수업을 할 동안 하였습니다. 보충 수업 기간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 하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오지 않았고, 반대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학교에 와서 보충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새 학기에는 수업료 1달러(55페소)를 인상하였습니다. 수업료를 인상하겠다고 광고를 하자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다른 분들은 수군수군 하였습니다. 수업료를 인상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거의 공짜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기에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 새희망 학교 마을에서 시내까지는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시내의 사립학교는 매달 100달러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교 주민들 생각에 우리 부부가 외국인이고 선교사이다보니 무조건 공짜 비슷하게 학교를 운영해 주길 원하였고, 자녀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항의하면 우리가 자기네 뜻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달러(100페소, 한화 2,500원)에서 1달러를 인상하여 3달러를 받았다고 하니 전학을 가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번 2023년 새 학기는 100여명 정도만 학교에 등록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1달러를 인상하는 것은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인데도 그냥 계속해서 수업료를 동결해 주지만 원하였고 자기네가 자주 사서 마시는 콜라 가격만 해도 수업료 2달러와 비슷한 금액인데 이해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63명이 등록을 하였고, 올해 2023년 새 학기는 171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수준 차이가 많습니다. 공립학교는 비만 조금 내려도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경우



가 허다하고, 공립학교는 교실 하나에 보통 60여명 이상이 수업을 하고 사립학교는 20~30명이 수업을 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발령을 받으면, 발령 받은 학교에서 보통 30년 넘게 근무하기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수업 불참, 월급 받는 날, 무수히 많은 공휴일(정규 공휴일, 종교 공휴일, 지역 공휴일)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새희망 학교가 좋은 평가 있기에 자녀들을 공부 시키고 싶어 하고 수업료는 가능하면 적게 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선생은 모두 5명이며, 그 중에 한 명인 절린 선생은 저희가 운영한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이었고, 선생이 되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은 부정부패가 심한 편인데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시간이 걸려도 잘 따라오도록 교육과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선교 대회 참석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의 워싱턴 선한목자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여 많은 도전이 되었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생각하였는데 부부에게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

희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세계 12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초청되어 선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된 선교대회에서 각국 선교사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선한목자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섬겨주셔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대회 전후에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 만나 귀한 교제를 나눠 좋은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만난 분들 중에는 학교 동문들, 22년 만에 만난 분도 계셨고, 19년 만에 만난 분도 계셨고, 새롭게 만난 분도 있는데 모처럼 얼굴 보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초콜릿과 사탕을 사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학생들이 행복해 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집에 가서 형제들과 나눠 먹겠다며 가방에 넣었는데 많이 나눠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 잠보앙가 지역은 여전히 '한국인 여행 금지구역'이라 보니 외부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경우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3. 우기 철에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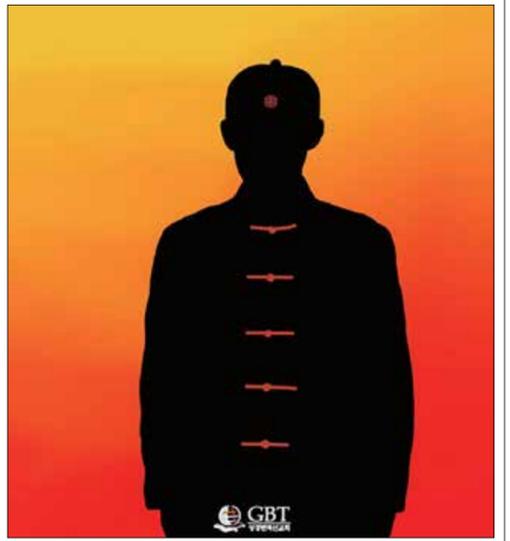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상 기후가 이어지다 보니 올해 우기 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지붕을 수리하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매년 우기철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지붕이 남아 올라갈 때 마다 늘 조심하였는데 지붕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안하며,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3. 헌타이와 준타이가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4. 농구장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오정윤/공윤자 선교사
ohngontak@hanmail.net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남부구이양마오족

▲ 인구

28,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무교 5%, 복음화율 0%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마오족 중 하나로 인식되다가 1995년야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종족으로 인정받았다. 용의 정령을 두려워하여 섬기며, 농작물을 이롭게 하는 정령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1949년 이전, 몇몇의 선교사를 통해 신자가 생겼으나 여전히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이다.

▲ 기도제목

1.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들지 못한 대부분의 남부 구이양 마오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2. 비록 소수 종족이지만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손길이 많이 일어나도록
3.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재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다민족찬양: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os@yahoo.com 63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7215</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다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82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일칸사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542-0288, Fax: (410)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영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성호</p> <p>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영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35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 에세이



류승렬 목사 (와싱턴중앙교회)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십시오

중국 작가 잉어당이 한 말입니다. "청년으로서 글을 읽는 것은 울타리 사이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중년으로서 글을 읽는 것은 자기 집 뜰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노년에 글을 읽는 것은 발코니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독서의 깊이가 체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잉어당의 말처럼 독서는 책이 전해주는 강도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다르지만, 더 큰 영향은 독서하는 사람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도 깊은 샘에서 길러내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 것이요, 같은 칼리만자로 산을 다녀와도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울리는 시를 창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보다 읽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 뜻 풀이에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성경은 내면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듣는 성경읽기가 시작될 때 거룩한 기쁨이 임하기 시작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사람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눈이 쉽게 부서지지만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굴러기만 해도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어떤 일이든 일정 수준에 이르면 무서울 정도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를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독서도 임계점에 이르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내공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임계점이란 한 문장씩 이해를 넘어 성경전체가 하나의 산처럼 눈에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또한 문자의 의미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성경읽기에서 임계점을 체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읽고 또 읽다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내면에 걸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듣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최면이 아닙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세뇌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읽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하루 십일조 시간을 양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데 투자해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인/터/뷰

러빙워십 대표 조셉 리 목사 & 이용주 본부장

제이어스와 함께 하는 찬양콘서트 '여호와께 돌아가자'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과 제이어스(대표 김준영)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오는 12월17일(주일) 오후 7시 LA에 있는 The Novo극장에서, 그리고 22일(금)과 23일(토) 오후 7시 애너하임 그로브 극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호 6:1-3)'라는 주제로 열린다. 찬양콘서트를 한달 여를 앞두고 러빙워십의 대표인 조셉 박 목사, 이용주 본부장, 그리고 재키 박 전도사를 지난 18일(수) 러빙워십 사무실에서 만나보았다.

조셉 리 목사는 "한달 여로 다가온 제이어스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별히 교회가 아닌 극장에서 찬양콘서트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16일 월요일부터 티켓예약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티켓 예약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찬양콘서트를 하게 된 것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100명정도 참석할거라고 하시는데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단지 제이어스와 교재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희 러빙워십 멤버들과 집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

며 나아갔더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어요."

조셉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던 데에는 매일 새벽3시경 카톡방으로 전하는 러빙칼럼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조셉 목사는 매일 새벽 3시에 전해지는 칼럼이 주는 개인적인 감사함은 신뢰라고 말했다. 4149일간 매일 150자 분량으로 써내려가는 러빙칼럼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며 일관성있는 모습 속에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12월 공연을 위해 4천명이 함께 기도하며 뛰고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본부장은 "러빙워십 사역에서 지난 코로나19팬데믹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조셉 목사님 주도로 멀티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일 수 없으니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유튜브 등 영상과 음향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펼쳐나가다보니 어느새 노후가 생기게 되었고 엔데믹에 접어들었을 때 좋은 찬양 집회와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이어스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 집회가 열리는 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회를 계기로 다음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콘서트를 소개하고 있는 조셉리 목사(와) 이용주 본부장

재키 박 전도사는 "제주변에 크리스천 학부모들에게 이번 콘서트를 소개했더니 반가워하는 거예요. 연말인데 아이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것들을 찾기 어려웠는데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공연소식이 너무 반가웠으며 그날 꼭 아이들과 극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조셉 목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준비된 저희 공연을 통해 남가주에 성령의 불길기 일어나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져 벌거숭이가 된 것도 모른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

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찬양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노보 극장과 애너하임 그로브 극장이 다윗이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넘쳐나고 이 패역한 남가주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이 함께하는 찬양콘서트의 티켓은 \$30, \$40, \$50이며 티켓구입처는 LA는 www.axs.com, 애너하임은 www.ticketmaster.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213)357-1565 <박준호 기자>

베드로 진서 10

옛날에는

노인들이 가장 잘 쓰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옛날에는 하는 말씀이다. 우리 선대의 어른들이 그렇게 잘 말씀하셨다. "옛날 6.25 사변 때 말이야, 옛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말이야, 옛날 네 엄마와 결혼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의 너희는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알고 고마워하라" 하는 식의 교훈의 말씀이었

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그 옛날은 참으로 힘든 세월이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 나의 입에서도 종종 옛날에 우리가 목회의 훈련을 받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목회할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며 오늘의 세대는 너무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옛날 이민 초창기 때는 어쩌겠고 옛날 목회 환경은 참으로 힘들었는

데 요즘 후배들이 이런 형편을 알고 있거나 할까 하는 우려도 한다.

지난 5월 총회 때 한 선교사의 보고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옛날 어른들이 당시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말세다, 말세다" 하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 말세 속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왔고 더 나은 세대 더 나은 목회를 이뤘다고 믿는다는 보고였다. 공감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지금의 후배들을 볼 때 말세라서 그런가 하면 한심하고 답답하기도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시대를 더 훌륭하게 이끌어갈 세대로 믿고 바라보자는 것이다. revpeter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